2023
이감 인사이트

2024학년도
성공적인 수능을 위한
이감의 **6모 분석자료집**

I 주요 데이터 분석

등급컷 / 오답률 TOP 10

[등급컷 분석]

등급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3학년도 대수능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예상 등급컷		
	평가원	평가원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진학사
1	86/84	95/91	95/92	97/93	95/90
2	80/76	91/86	89/87	88/84	87/83
3	72/68	85/81	80/78	79/76	79/74
4	62/58	76/73	70/68	69/67	69/65
5	50/47	65/63	58/56	53/51	56/52
6	39/35	52/48	40/38	34/32	42/38
7	29/25	36/33	22/20	23/21	30/26
8	23/20	23/21	16/14	19/17	22/18

※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순서로 점수를 기재함.

01 객관적인 난도를 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평가를 받은 작년 수능보다도 분명히 쉬운 시험이었다. 다만 첫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심리적 상태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전 감각을 고려했을 때 최종적인 등급컷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확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02 이번 시험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쉬운 독서, 어려운 문학, 까다로운 언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부터 푸는 수험생이나, 영역별 시간 배분을 엄격하게 지키는[→ 가령 독서 영역이 쉬워도 시간을 크게 줄이지 않는 경우] 수험생이라면 이번 시험에서 특히 골치가 아팠을 것이다. 다만 이 영역별 난도가 앞으로의 평가원 시험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 이번 시험은 하나의 경험일 뿐, 자신에게 적합한 시험 운용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찾아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03 예상 등급컷은 대푯값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선택과목 간의 격차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5점 정도의 격차가 있을 것이다. '화법과 작문'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항들이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까다롭지 않았던 반면 '언어와 매체'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감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서술어의 자릿수' 같은 복합적 판단] 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공통과목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편이 표준점수 이득 면에서 입시에서는 더 유리하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오답률 TOP 10_화법과 작문]

(%는 반올림한 값임)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33	문학	3	62%	⑤	18%	3%	29%	12%	38%
2위	14	독서	2	61%	①	39%	12%	17%	18%	14%
3위	24	문학	2	55%	①	45%	14%	19%	14%	7%
4위	9	독서	2	53%	①	47%	7%	25%	14%	6%
5위	18	문학	2	47%	①	53%	8%	26%	8%	5%
6위	30	문학	3	47%	②	7%	53%	12%	19%	9%
7위	16	독서	3	40%	③	7%	8%	60%	16%	10%
8위	41	화작	2	39%	①	61%	4%	22%	2%	11%
9위	10	독서	3	38%	④	3%	6%	19%	62%	9%
10위	40	화작	3	37%	⑤	2%	3%	11%	21%	63%

독서	4

문학	4

화작	2

01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4문항, 문학 4문항, 화작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작이 2문항이나 포함되어 있지만, 오답률 수치를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항들은 아니다. 틀렸다면 단순한 훈련 부족이다. '화법과 작문'은 별도의 개념 학습을 요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지문과 선지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02 독서 영역에서는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에서 2문항[→ 14, 16번], 기술 지문에서 2문항[→ 9, 10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사회 지문에서는 오답률 TOP 10에 어떤 문항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독서 문항이 오답률 TOP 10에 6개 이하로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렇게 특정 지문에서 한 문항도 포함되지 않은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과거의 시험들과 비교했을 때 독서 문항들의 오답률도 평균적으로 15~20%가량 낮다. 이례적으로 쉬운 구성이었던 만큼 독서 영역에서 시간을 충분히 절약하고, 그렇게 얻은 추가 시간을 문학 영역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운용이었다.

03 문학 영역에서는 고전산문에서 1문항[→ 18번], 고전시가 + 수필 갈래 복합에서 1문항[→ 24번], 현대소설에서 1문항[→ 30번], 현대시에서 1문항[→ 33번]이 오답률 TOP 10에 고루 포함되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특히 현대소설과 현대시에서는 각 선지에서 무엇을 묻는지, 어떤 점에서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특히 오답률 1위였던 33번의 경우는 명료한 기준을 갖고 ⑤번 선지의 정오를 판단한 수험생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단정은 할 수 없겠으나, 이 정도 교훈은 새길 필요가 있다. EBS 연계가 보편화된 이후로 많은 수험생들이 작품 분석에만 치중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수능 시험에서는 작품 분석보다도, 그에 대해 주어진 선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즉 '작품 분석' 이상으로 '선지 분석'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04 각 영역에서의 지문별 세부적인 내용이나 참조할 점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에서 설명하겠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오답률 TOP 10_언어와 매체] (%는 반올림한 값임)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33	문학	3	54%	⑤	17%	2%	24%	11%	46%
2위	14	독서	2	44%	①	56%	9%	11%	13%	11%
3위	37	언매	2	44%	②	7%	56%	22%	10%	6%
4위	42	언매	3	37%	⑤	10%	3%	10%	13%	63%
5위	30	문학	3	36%	②	6%	64%	8%	14%	8%
6위	9	독서	2	35%	①	65%	5%	16%	10%	4%
7위	24	문학	2	35%	①	65%	8%	12%	11%	4%
8위	36	언매	3	35%	⑤	8%	7%	8%	11%	65%
9위	35	언매	2	33%	③	4%	17%	67%	7%	6%
10위	16	독서	3	30%	③	4%	6%	70%	12%	8%

독서	3

문학	3

언매	4

01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3문항, 문학 3문항, 언매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의 시험에 비해서도 언매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유독 언어 영역에 까다로운 문항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화법과 작문'에 비해 공통과목의 오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더 나아가 경쟁 선지에 덜 쏠렸음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중상위권 이상의 수험생들이 '언어와 매체'에 더 많이 응시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만큼 입시에서 표준점수 이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겠다.

02 언어 영역에서는 3문항[→ 35, 36, 37번]이, 언어-매체 통합 영역에서는 1문항[→ 42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통상적으로 언어-매체 통합 영역은 무난한 난도로 출제되어 왔고, 다소 까다롭더라도 언어 지식을 묻는 문항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매체에 대한 이해를 묻는 일반적인 문항에서 높은 오답률이 나타났다. 해당 문항이 선지 전반부의 결함을 확인해야 하는 비교적 까다로운 유형이기도 했지만, 앞선 언어 영역에서 시간을 많이 쏟느라 매체 영역에서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언어 영역의 경우 언제나처럼 새로운 지식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2~3개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웠다. 특히 '서술어의 자릿수'와 같이 지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항이 포함되었다는 점도 수험생들에게 큰 부하였을 것이다. 언어 영역을 잘 풀기 위해서는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푸는 것도 중요하다. 각각의 선지를 자신이 올바르게 판단했는지, 이 선지에서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시간을 들여 따져 볼 필요가 있다.

03 독서 영역에서는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에서 2문항[→ 14, 16번], 기술 지문에서 1문항[→ 9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사회 지문에서는 오답률 TOP 10에 어떤 문항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독서 문항이 오답률 TOP 10에 6개 이하로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렇게 특정 지문에서 한 문항도 포함되지 않은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과거의 시험들과 비교했을 때 독서 문항들의 오답률도 평균적으로 15~20%가량 낮다. 이례적으로 쉬운 구성이었던 만큼 독서 영역에서 시간을 충분히 절약하고, 그렇게 얻은 추가 시간을 문학 영역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운용이었다.

04 문학 영역에서는 고전시가 + 수필 갈래 복합에서 1문항[→ 24번], 현대소설에서 1문항[→ 30번], 현대시에서 1문항[→ 33번]이 오답률 TOP 10에 고루 포함되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특히 현대소설과 현대시에서는 각 선지에서 무엇을 묻는지, 어떤 점에서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특히 오답률 1위였던 33번의 경우는 명료한 기준을 갖고 ⑤번 선지의 정오를 판단한 수험생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단정은 할 수 없겠으나, 이 정도 교훈은 새길 필요가 있다. EBS 연계가 보편화된 이후로 많은 수험생들이 작품 분석에만 치중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수능 시험에서는 작품 분석보다도, 그에 대해 주어진 선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즉 '작품 분석' 이상으로 '선지 분석'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05 각 영역에서의 지문별 세부적인 내용이나 참조할 점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에서 설명하겠다.

Ⅱ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

공통과목 : 독서

01. 출제 경향

총평

- 전체적인 난도는 매우 평이하였다. 작년 수능의 경우 주제통합형 지문이 특히 쉽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난도가 조절되었다면, 이번에는 모든 지문들이 무난하게 쉽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난도가 대폭 낮아졌다. 지문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경향은 유지되었으나, 작년 수능까지는 '압축적으로 구성된 짧은 글'을 지향하였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단순히 짧은 글'을 지향하였다. 즉 지문의 구성이 복잡하거나 정보량이 많지는 않았다. 자연히 각 선지의 내용도 평면적이었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선지들도 거의 없었다. 올해 6월 모의평가도 취할 점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써 앞으로의 평가원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문 평가

- 이전과 동일한 구성으로 독서론 1개, 주제통합형 지문 1개, 단일 지문 2개가 출제되었다. 다만 주제통합형 지문이 독서론 이후에 [4~9번]의 구성으로 출제되었던 과거의 시험들과 달리, 이번 시험에서는 [12~17번]으로 마지막에 배치되었다. 다만 시험 운용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변화는 아니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순서대로 지문들을 풀면 된다.
- 독서론[→ 1~3번]은 이번에도 변별력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매우 쉽게 출제되었다. 다만 단순히 개념들을 배열하지는 않았고, 개념들 간의 순환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이는 3번 문항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난도와는 별개로, 수능 시험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독해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전히 물어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사회 지문[→ 4~7번]은 수능특강 111쪽의 '공포 소구 이론'을 연계로 한다. EBS 지문의 핵심 개념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계 체감도는 높았겠지만, 지문과 문제 모두 평이하였으므로 연계와 관련하여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 기술 지문[→ 8~11번]은 수능특강 182쪽의 '활성화 에너지와 촉매'를 연계로 한다. 예상 가능한 주제였으므로 '활성화 에너지, 촉매, 화학 반응'과 같은 개념소들은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를 통해 충분히 이미 접해 봤을 것이다.
- 주제통합형(인문) 지문[→ 12~17번]은 수능특강 11쪽의 '중국어 방 실험'을 연계로 한다. 다만 해당 실험을 언급하고 있을 뿐, 지문의 핵심은 (가)의 확장 인지 이론과 (나)의 감각과 지각의 주체로서의 현상학적 개념들을 파악하는 데에 있으므로, 크게 연계가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선 지문들에 비해서는 내용이 제법 밀도가 있는 편이고, 14번처럼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

문항 평가

- 오답률 TOP 10 문항 중에 독서는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3개뿐이다. 지금까지의 시험에서는 통상 7~8개가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시험의 독서 영역이 얼마나 쉬웠는지를 알 수 있다.
- 사회는 모든 문항들이 단순 내용 일치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특이하게도 주제통합형 지문이 아님에도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보기〉 문항 또한 문단4의 내용을 대응하면 쉽게 풀리는 만큼, 특기할 점이 없다. 틀렸다면 실수한 것이다.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연계 소재를 제외하면 특별히 교훈으로 삼을 대목은 없다.
- 기술의 경우도 특별히 까다로운 문항은 없었다. 각각의 선지들이 묻는 바는 앞선 사회 지문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면적이었다. 또한 〈보기〉 문항이 두 문항이나 배치되어 있으나, 두 문항 모두 실질적으로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대응하면 될 뿐, 새로운 내용이나 심화된 내용을 다루지는 않으므로 까다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형식상 특기할 점이라면 선지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은 편인데, 이 역시 낮은 체감 난도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 주제통합형 인문은 비교적 난도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문항들의 오답률이 전체적으로 높다. 특히 (나)의 관점을 올바르게 수용하였는지를 묻는 14번 문항이 특히 가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난도 문항 해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기술 지문과 대조적으로 선지의 길이가 긴 편인데, 각각의 선지가 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꽤나 헷갈렸을 것이다.

02. 지문 분석

[4~7] 사회 : 공포 소구 연구

주목해야 할 지문(2024학년도 6모 대비) : 중요도 C

- 공포 소구를 활용한 설득 전략에 관련된 연구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지문이다. 다만 각각의 연구들을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 없이, 각각의 연구들만 이해하면 충분하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주의할 지점은 없다. 4문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문의 내용에 관하여 묻는 문항은 2문항뿐이라는 점에서, 특히 〈보기〉 문항은 사실상 문단4만으로 풀린다는 점에서 그다지 헤맬 대목이 없었을 것이다.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111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공포 소구'가 해당 지문에서도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아니었으나, 지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8~11] 기술 : 고체 촉매의 구성

주목해야 할 지문(2024학년도 6모 대비) : 중요도 AA

- '촉매'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중에서도 '고체 촉매'를 구성하는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의 역할에 대해서 각각 병렬적으로 설명하는 지문이다. 짧은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182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활성화 에너지, 촉매'가 해당 지문에서는 부수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로 연계 학습을 충실히 한 수험생들은 문단1, 2를 수월하게 읽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 9번 (오답률 35%)

*** 정답 설명 : ①**

1) ㉠의 '촉매 활성'을 높이려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우선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하며,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아야 한다[문단2].
2) 또한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를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되기 때문이다[문단3].
3) 소량의 '증진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문단4].

4)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리면,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아지므로 '촉매 활성'이 높아질 것이다.

5)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오답 설명**

② '소결'은 촉매 활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지지체'와 '증진제' 따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소결을 '촉진'하는 증진제를 첨가해서는 안 된다.

③ 발문을 보면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을 묻고 있다. 이는 반응 속도를 높인다는 뜻이지, 반응 속도를 늦춘다는 뜻이 아니다.

[경로 이탈] 해당 선지를 골랐다면 '지지체를 사용한다'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반응 속도를 늦추는'은 애초에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다. '촉매 활성'은 지문에서 개념어로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정의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으로 주어졌다. 따라서 '반응 속도를 늦추는'이라는 표현에도 충분히 유의했어야 한다.

④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면 해당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워지고[문단1], 반응 속도는 오히려 느려질 것이다. 즉 이는 촉매 활성을 오히려 낮추는 방법에 가깝다.

⑤ 활성 성분의 금속 입자들을 뭉치게 하여 큰 입자로 만드는 것은 '소결'에 대응하는 설명이다. 입자가 소결되면 촉매 활성이 오히려 저하된다.

[12~17] (인문-인문) : 확장 인지 이론과 몸의 현상학

주목해야 할 지문 (2024학년도 6모 대비) : 중요도 AA

- (가)의 핵심은 심신 문제에 대한 나머지 관점들과 구분되는 '확장 인지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다면, (나)의 핵심은 '지각과 감각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특히 (나)에서 다루는 현상학의 주제는 그 내용의 특성상, 수험생 입장에서 제대로 좇아가기가 버거웠을 것이다. 다만 완전히 장악하기 어려운 내용이 등장하더라도, 적어도 핵심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지문의 이해 정도와는 별개로 14번, 16번을 틀렸다면 그러한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평소에 이감 모의고사나 간쓸개를 풀 때에도 내용이 복잡하다고 넘기지 말고, 일차적으로는 적어도 각 선지들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읽어 내는 것을 목표로, 이차적으로는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찬찬히 읽어 보는 것을 목표로 삼자.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11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중국어 방 실험'이 해당 지문에서는 부수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관련하여 심신 문제의 각종 관점들을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로 충분히 다룬 만큼, 글의 흐름이 낯설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 14번 (오답률 44%)

*** 정답 설명 : ①**

1) ㉠은 '확장 인지 이론'의 논지를 잘 나타내는 대목으로, 그다음 문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지 과정'은 주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나)의 필자는 의식이 물질에 불과하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지각이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판단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서 후자는 '확장 인지 이론'이 전제하는, 인지 과정이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닿아 있으므로, (나)의 필자는 ㉠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3) 더 나아가 (나)의 필자가 ㉠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고 ㉠은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필자에 따르면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에 의하여 주체와 대상이 비로소 분리되므로, 지각에 의해 주체와 대상이 모두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즉 '지각'은 주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상과 주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나)의 필자는 ㉠에 관하여, '지각'은 주체의 존재를 미리 전제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할 것이다.
5)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오답 설명**

② (나)의 필자는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식을 독자적 실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확장 인지 이론'과 마찬가지로 주체가 지각에 앞서 이미 존재하며, '지각'이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의 필자는 ㉠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정답 설명-3)].

③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 '확장 인지 이론'에 대한 설명이 맞지만, 이는 의식이 물질에 불과하다는 '동일론'의 주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나)의 필자가 내릴 평가는 아니다.

④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 '확장 인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다만 이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나)의 필자는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에 의해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므로 지각의 주체는 '의식'이 아닌 '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⑤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 '확장 인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지각이 이루어진 후 주체와 대상의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나)의 필자는 ㉠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정답 설명-3)].

공통과목 : 문학

01. 출제 경향

총평

- 어려웠다. 지나칠 만큼 쉬웠던 작년 수능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수험생들로 하여금 앞으로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 시험이었다. 고전산문을 제외하면 독해하기 결코 쉽지 않은 작품들이 제시되었고, 정오 판정 포인트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선지도 여럿 있었다. 갈래 복합을 제외하고는 지문에서 선지에 인용한 부분을 굵은 글씨로 표시해 주지 않는 등, 풀이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배려들도 부족했다. 이런저런 요소가 합쳐져 수험생들은 문학 문제 풀이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써야 했을 것이다. 이번 시험에 독서가 쉬웠던 만큼 문학을 통해 난도를 높이려고 한 것은 아닌가 짐작된다.

출제 작품

세부 영역	문항 수	작품	EBS 연계
고전산문	4문항	작자 미상, 「상사동기」	수능특강 19쪽
고전시가 + 수필	5문항	권호문, 「한거십팔곡」	수능특강 312쪽
		김낙행, 「기취서행」	비연계
현대소설	4문항	최명익, 「무성격자」	비연계
현대시	4문항	조지훈, 「맹세」	수능특강 78쪽
		오규원, 「봄」	비연계

연계 평가

- 전체 6작품 중 3작품이 연계 작품이어서 EBS 연계율 50% 방침이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시조 한 작품이 제시된 고전시가 갈래는, 지문에 제시된 연들이 모두 수능특강에 수록된 부분이어서 연계율이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세트는 출제 문항도 연계 학습을 한 수험생과 하지 않은 수험생 간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구성되었다.
- 산문 갈래의 경우 고전산문은 연계로, 현대소설은 비연계로 출제하는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현대소설은 대단히 낯선 작품이 제시되었는데, 지문의 난도도 상당하였고 문제도 까다롭게 출제되어서 해당 작품에서 수험생들이 시간을 많이 썼을 것이다.

- 운문 갈래의 경우, 연계 1작품과 비연계 1작품을 짝 지어 출제하는 기존의 출제 방식이 현대시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고전시가에서는 연계 1작품만 긴 분량으로 제시되었다.
- 갈래 복합은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극 대신 수필이 출제되었다.

02. 작품 분석

[18~21] 고전산문 : 작자 미상, 「상사동기」

주목해야 할 지문 (2024학년도 6모 대비) : 중요도 B

- 문학에서 가장 쉬운 작품이다. 수록 지문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이 없고, 문항 구성도 평범하였다.
- 지문은 수능특강에 수록된 대목의 앞부분에서 출제되었다. 연계 학습을 충실히 한 수험생의 경우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수험생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읽어 낼 수 있는 익숙한 패턴의 지문이었다. 21번 〈보기〉 문항도 〈보기〉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데다 설명이 상세한 편이어서 어렵지 않았다.
- 연계 작품인 점에 주목해서인지, 앞부분 줄거리를 주지 않고 바로 지문을 제시하였다. 중략 줄거리 역시 제시하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줄거리를 제시하지 않으려는 평가원의 최근 출제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줄거리에 의존하지 않고 지문 내의 자체 논리에 근거하여 인물 관계나 서사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22~26] 고전시가 + 수필 : (가) 권호문, 「한거십팔곡」 / (나) 김낙행, 「기취서행」

주목해야 할 지문 (2024학년도 6모 대비) : 중요도 AA

- 고전시가와 고전 수필을 엮어 갈래 복합으로 제시하고 5문항으로 출제하였다. 꽤 오랫동안 평가원은 고전시가 두 작품을 묶어서 출제해 왔는데, 이번에는 한 작품만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초창기 수능 시험에서는 3작품을 묶은 세트들도 다수 출제되었던 바, 수험생들은 다양하게 구성된 문제들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 22번은 운문과 산문의 표현상 특징을 한 문항 안에서 묻고 있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유형의 문항이다. 갈래 간의 엄격한 구분에 연연하지 않는 문항 구성으로 판단된다.
- 23번, 24번, 26번은 연계 학습을 한 수험생에게 확실히 유리한 문항들이었다. 24번은 〈보기〉를 주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특이한 문제였다. 〈보기〉가 제시된 문항은 항상 적절

하지 않은 것을 찾도록 하는 것이 그간의 출제 관례였기 때문이다. 「한거십팔곡」은 다른 연시조들과 비교할 때 그 전체 구성이 유기적인 것이 특징적이고, 의미 있는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짚어 줄 수밖에 없는데, 과거 평가원 기출(19학년도 9모)에 이 작품이 출제되었을 때 이미 그 내용상의 유기성을 짚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 26번의 경우, 지문에서 '은커나 현커나'와 같이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시구에 의미 풀이를 주지 않고 〈보기〉에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라는 정보를 통해 주어진 시구의 의미를 역으로 파악하게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평가원은 지문에 최소한의 어휘 풀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지문과 문제 간의 유기성을 확보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볼 필요가 있다.
- 「기취서행」은 과거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요즘 수험생들에게는 꽤 까다로운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선비의 자아 성찰이라는 면에서 주제가 익숙하고 선명한 편이라 풀이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 수필 단독 문제인 25번은 지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읽도록 하고 또 지문의 앞부분에서 끝부분까지 완결되게 읽어 낼 필요가 있는 선지를 배치한 좋은 문항이었다.

[27~30] 현대소설 : 최명익, 「무성격자」

- 19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비 오는 길」이라는 작품이 출제된 적이 있었던 작가 최명익의 아주 낯선 작품이 제시되었다. 치밀한 심리 묘사가 중심이 된 지문에 맞춰 문제도 인물의 심리를 세밀하게 짚어 내도록 구성되어서 매우 까다로운 편이었다.
- 이감에서도 작가 최명익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의 작품 세계를 검토한 후 이 작품을 발굴하여 이미 출제를 완료해 두었다. 그러나 해당 세트가 6월 모의평가 시행 이후 출판될 회차에 배치되어 있어서 수험생들이 미리 접해 볼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 무척이나 아쉽다. 특히나 지문도 상당 부분 겹치고 서술상의 특징 문제와 인물의 성격 파악과 관련된 문제의 일부 선지도 일치하여서, 만일 수험생들이 6월 모의평가 전에 미리 풀어 보았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
- 이 작품 역시 앞부분 줄거리를 최소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인물 간의 관계 등을 지문의 내용을 통해 추론하도록 하고 있다. 줄거리에 의존하지 않고 지문 내의 자체 논리에 근거하여 인물 관계나 서사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 30번은 정답을 찾기가 매우 까다로운 문항이었다. 더구나 지문의 어느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지 굵은 글씨로 표지를 주지도 않아서 풀이하는 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을 것이다.

정답의 경우, 해당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읽고 또 선지의 구성 논리를 섬세하게 파악하지 않는 한 판단하기가 어렵도록 진술되어 있다. 또 애초에 정답 선지가 짚고 있는 문단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대목이기도 하다. 전체 작품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 때 정답 선지가 크게 틀려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어서, 이번 시험에서 수험생들의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는 33번이었지만, 실제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문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난도 문항 해설 : 30번 (오답률 36%)

*** 〈보기〉 설명**

소설의 중심인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주인공 정일은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한다.
2) 그는 자신과 주변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3) 그는 관찰과 분석을 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하여 드러낸다.

*** 정답 설명 : ②**

1) 정일이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은 것은 용팔의 웃음에 대해 불쾌감과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낀 다음의 일이다.
2) 정일은 자신이 왜 분노하다가 금세 웃음을 짓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자신의 불쾌감이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3) 즉 정일은 용팔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용팔에 대한 불쾌감이 괜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웃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다.

[최적 경로] 용팔에게 실제 공모 의사가 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정일은 마치 용팔이 자신을 음모에 끌어들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병든 아버지를 두고 상속받을 재산을 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일이 느끼는 감정일 뿐, 용팔은 자신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정일 자신이 용팔의 웃음을 공모 의사의 표현이라도 되는 양 불쾌하게 여긴 것일 뿐, 용팔은 그러한 의사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정일이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 내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일의 도장을 찍은 후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러 가는 용팔의 태도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으며, 수록 지문을 넘어 작품 전체의 맥락에서 보아도 이 부분에서 용팔이 딱히 공모를 제안하고 있다고 볼 이유가 없다.

＊ 오답 설명

① 용팔은 정일이 상속하게 될 아버지의 재산을 산판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면서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 정일은 산판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용팔을 내심으로 '소인 놈'이라 부르며 경멸한다. 그러면서도 정일은 한편으로 용팔의 산판알이 표시하는 재산의 액수를 유심히 바라보는데, 정일이 속물적 욕망에 구속되어 있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면 이러한 행동은 정일 또한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③ 정일은 용팔의 제안에 따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도장을 내주지만, 아버지에게 보고하러 가는 용팔의 뒷모습을 보면서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끝내 말리지는 않는데, 그렇게 그는 자신이 말리는 행동조차 주저하는 이유를 계속 생각하고만 있다.

④ 정일은 삶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에 눈을 찌푸리다가도, 중병의 고통 속에서 애써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버지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자신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일종의 존경심을 느끼고 있다.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진술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⑤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 아버지가 물줄기를 바라보는 모습에 대해 정일은 '아버지에게서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는 것이 처음이라는 생각을 한다. 아버지의 눈에 나타난 이러한 동경은 곧 생에 대한 동경이라 이해할 수 있다.

[31~34] 현대시 : (가) 조지훈, 「맹세」 / (나) 오규원, 「봄」

주목해야 할 지문 (2024학년도 6모 대비) : 중요도 C

- (가)는 윗세대 시인의 연계 작품으로, (나)는 젊은 세대 시인의 비연계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 조지훈은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산상의 노래」가 출제된 시인인데 이번에 다시 출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같은 작품이나 동일 작가는 만 3년을 건너뛰는 시간 차이를 두고 출제해 온 평가원이, 이번에는 그동안의 이러한 출제 경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듯하다.
- 예년에는 현대시 문제의 선지 복잡도가 높아서 풀이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 집중도만 유지한다면 정답은 다소 싱겁게 도출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달리 정답도 까다롭게 구성하였다.

- 31번은 무려 10개의 연으로 된 (가)의 연 수를 구체적으로 짚어 가며 풀도록 선지가 구성되어 있어,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지문으로 돌아가서 시험지에 일일이 연 수를 적어야 했을 것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러한 요소도 모두 수험생들이 문학 문제 풀이에 시간을 소모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 31번 ②번 선지를 볼 때,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은 것이 특징적이다. 문장의 형식이 아니라 의미로까지 확대해서 표현에 대해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정답인 ④번 선지에는 '양면성'과 '효용성'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 개념의 정오를 판단해야 하는지, 짧은 시간 안에 시를 감상해야 하는 수험생들로서는 막연했을 것이다.
- 32번은 이전의 운문 갈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항 유형이다. 마치 산문 갈래처럼 시의 내용 이해를 묻고 있다.
- 33번은 이번 시험 전체에서 오답률 1위를 차지한 문제이다. 역시 선지에 인용된 지점이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풀이 시간이 지체되는 불편함이 있었고, 〈보기〉에 제시된 '봄과 같은 세계'라는 진술도 〈보기〉 내용으로서는 다소 낯선, 의미를 풀어 주지 않은 날것의 정보였다. 틀린 수험생들은 ③번 선지를 가장 많이 골랐는데, 선지에 포함된 '개별성'이라는 진술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작품 속에 거론된 소재 '모두'가 '자유롭게'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바람을 그리고 있으므로 '모두'가 아닌 '개별성'은 틀렸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 34번 역시 〈보기〉 문항인데 '가장 적절한 것' 하나를 고르는 문형으로 제시되었다. 〈보기〉 내용이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독자의 입장이 아니라 창작자인 시인의 입장을 다룬 내용이라 다소 낯설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보기〉에 충분한 정보를 주고 가장 적절한 것 4개를 판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작품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그 반대 문형을 선택하다 보니 수험생들에게는 이 역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 33번 (오답률 54%)

＊ 〈보기〉 설명

자신이 원하는 세계의 모습을 그린 (가)와 (나)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두 작품에 나타나는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에 주목하자.

(가)	(나)
- 부재하는 임을 기다림 -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냄	- '봄과 같은 세계[→ 자유]'를 바람 -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기를 바람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짐
대상과 결부된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됨	

＊ 정답 설명 : ⑤

1) (가)의 '붉은 마음'은 임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화자가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임'을 기다린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 (나)의 화자가 '봄'과 같은 세계, 즉 '자유'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는 것은 맞지만, '담벽' 안에서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담벽'은 '라일락'이나 '별', '우리 집 개의 똥 하나'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모두' '자유롭게' 존재하기를 바라는 대상들 중의 하나이다. 화자가 바라는 것은, '꽃피고 싶은 놈'은 무엇이든 꽃피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무엇이든 반짝이는 세계이다. '담벽'조차도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세계인 것이다. 즉 (나)의 화자가 원하는 것은 경계도 제한도 규정도 없는 자유이므로, 화자가 '담벽'을 경계로 세워 두고 그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누리려고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① (가)의 화자는 '어둠'에 잠겨 창백해진 꽃송이에게 자신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불어 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 가겠다고 한다. '해돋는 아침'은 화자가 바라는 더 나은 세상을 의미하며 그에 대비되는 '어둠'은 화자가 해소하고자 하는 부정적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나)의 화자는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라고 한다. 이 시구는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이 누리는 자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의 모습 자체에 주목한다는 '선생님'의 말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마지막 한방울 피마저 불어 넣'어야 하는 '창백한 꽃송이'라고 여긴다. 이에 반해 (나)의 화자는 '자 봐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라고 하여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그것들의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창백해진 대상들에게 자신의 '피마저 불어 넣'고 죽겠다는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라는 말에 나타나듯이, 대상들에게 각자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다. '선생님'의 말을 참고하면, 화자의 이러한 진술 속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그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태도가 담겨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총평

- 대체로 평이했으며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화법-작문 통합[38~42번]' 세트에 '토론'이 출제된 데다 지문과 선지의 길이가 길었던 탓에, 전반적인 문제 풀이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연[35~37번]', '토론-소감문[38~42번]', '정보 전달 글[43~45번]' 세트에서 항상 다뤄지던 문항들이 출제되었던 만큼 문제 풀이 자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평소 평가원 기출이나 이감 모의고사를 통해 강연, 토론, 정보 전달 글 등 '화법과 작문'의 각 세트에서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는지를 눈여겨봐 왔다면 실전에서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화법과 작문'에서 EBS 교재 연계는 언제나 그렇듯 연계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이번에도 '작문[43~45번]'에서만 학교 공간 바꾸기라는 비슷한 소재가 출제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EBS 교재를 활용할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 자체보다는 각 세트에서 다루는 문항들 위주로 그 패턴을 학습해 볼 것을 권한다.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35~37] 화법(강연) : 한글 대중화에 힘쓴 주시경, 최현배

- '강연'이 출제되었다. '강연'은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원 모의평가 및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발표'와 유사한 형식이다. 문항 구성은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35번), 강연 계획(36번), 청중의 듣기 활동(37번)'으로, '발표'와 '강연' 세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성이었다. 지문의 내용이 평이하고 문항의 구성도 전형적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쉽게 풀었으리라 짐작된다. '발표'와 '강연'은 '화법'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형식이므로 각 문항을 구성하는 선지를 중심으로 꼼꼼한 학습이 요구된다.

[38~42] 화법-작문 통합(토론-소감문) : 규격화된 초보 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 '토론(가)'과 이 토론의 참여자가 쓴 '소감문(나)'으로 구성된 '화법-작문 통합' 세트로 출제되었다. 통합 세트의 화법에서 '설득하는 말하기'를 다룰 경우 '토론'이나 '협상' 형식이 출제되며 둘은 비슷한 빈도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토론이 출제되었다. 다만 그동안 '토론'이 출제될 경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을 모두 제시했던 데 반해, 이번에는 한쪽[→ 찬성 측]의 입론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대 신문을 긴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토론 형식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입론과 반대 신문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또한 40번 문항에서 다른 한쪽[→ 반대 측]의 입론을 추론하게 하는 새로운 형식이 시도되었는데, 조금은 새로운 데다 선지의 정보량이 많아 문제 풀이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을 것이다.

문항 해설 : 40번 (오답률 37%)

＊ 정답 설명 : ⑤

주어진 지문을 바탕으로 토론의 '반대 측 입론'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화법과 작문'에서 41번 다음으로 오답률이 높았다. 우선 선지만을 살펴볼 때, '대부분의 초보 운전자가 표지를 부착하고 있음'은 표지의 '규격화'가 불필요한 이유가 아니라 '의무화'가 불필요한 이유이므로 선지만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격화'는 표지의 형태를 통일하는 것이고, '의무화'는 표지를 무조건 부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의 '찬성 1'의 입론과 '반대 2'의 반대 신문을 참고할 때 규격화된 초보 운전 표지 부착의 의무화는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규격화된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해' '국가의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다. 따라서 '반대 측 입론'에서 '기존 표지를 규격화된 표지로 교체하는 비용을 초보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 오답 설명

① (나)에 따르면 '표지 부착 부작용 사례 관련 신문 기사'는 '초보 스티커, 되레 난폭 운전자들의 표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가)의 '반대 2'의 '일부 경력 운전자들이 표지를 부착한 초보 운전자에 대해 위협 운전을 할 수도 있'다는 반대 신문도 함께 고려할 때 '의무화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반대 측 입론'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② (나)에 따르면 '단계적 운전면허 제도 관련 논문'은 '초보 운전자의 운전 숙련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따라서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지 않고도 초보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반대 측 입론'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③ (나)에 따르면 '교통 문화 지수 관련 보도 자료'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의 '반대 2'의 '운전 문화 개선'은 표지 부착 '의무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반대 신문을 고려하면 '표지 부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반대 측 입론'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④ (나)에 따르면 '다양한 초보 운전 표지 사진'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가)의 '반대 2'의 '표지 규격화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반대 신문을 함께 고려하면 '국가 차원에서 표지를 규격화하면, 개성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자기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반대 측 입론'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문항 해설 : 41번 (오답률 39%)

＊ 정답 설명 : ①

(나)의 각 문단의 내용 조직 방법을 묻는 문제로 '화법과 작문'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 (나)의 1문단에서 '나도 내년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생각에 관심이 생겨'라고 제시된 부분은 '토론에 참여하기로' 한 계기이지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아니다. (나)의 1문단에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 오답 설명

② (나)의 2문단에서는 '먼저 쟁점을 분석한 후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날에는 근거 자료를 마련하려고~사진들을 찾아 저장했다.', '그리고~인터넷 신문 기사를 수집했다.', '이후 관련 기관에 메일로 자료를 요청하여~보도 자료를 받았다.', '그다음 날에도 자료를 찾으러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갔다.'라고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다.

③ (나)의 2문단에서는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한 것'과 함께 '인터넷', '관련 기관에 메일로 자료를 요청', 그리고 '도서관'으로 토론에 활용할 자료를 수집한 경로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였다.

④ (나)의 3문단에서는 '말을 더듬는 편'이라는 말하기 불안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실전처럼 말하는 연습을 반복'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⑤ (나)의 3문단에서는 '친구는 준비한 자료를 활용해 논리적으로 답변한 반면 나는 찬성 측 반론을 미흡하게 반박한 것 같아 조금 아쉬웠다'라고 토론 활동에 대한 평가를 친구와 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43~45] 작문(정보 전달 글) : 학교 공간 바꾸기

- 기획 연재 기사 중 한 편을 제시한 세트의 상황 설정은 독특하지만, '쓰기 전략(43번), 자료 활용(44번), 조언에 따른 문단 쓰기(45번)'의 구성은 '정보 전달 글'에서 반복 출제되는 형식이다. '화법과 작문' 세트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오는 편인 '자료 활용(44번)' 문항에 생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정답 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언에 따른 문단 쓰기(45번)'는 대개 마지막 문단을 생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조언에 따라 생성된 1문단을 제시하고 그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찾게 했다는 점에서 새롭다.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01. 언어

총평

- 언어 영역은 국어사, 통사론, 음운론, 담화 영역에서 고루 출제되었다. 기존의 출제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음운론 관련 문항에서 발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표준 발음을 파악하도록 하여 이전 출제 형식의 경향과 다소 다르게 출제되었다. 교육 과정 내에서 익숙하게 다뤘던 기본적인 문법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사례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유형의 문항들이 있어 다소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제당 세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요소가 많아 각각을 해결하는 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35~36] 국어사

- 중세 국어 격조사의 결합 원칙을 다루는 지문으로, 주변 환경에 따른 격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결합 형태와 문장에서의 쓰임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중세 국어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가가 선지 판단의 핵심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익숙하게 다뤘던 개념 이외에도 낯선 내용들이 제시되어 이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했으므로 다소 까다로웠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 36번 (오답률 35%)

* 정답 설명 : ⑤

ⓔ에서 '孔子(공자)'는 후행하는 용언인 '기티신(남기신)'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때 '기티신(남기신)'에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孔子(공자)'는 존칭의 유정 체언임을 알 수 있는데, 존칭의 유정 체언 뒤에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의 형태는 'ㅅ'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에서는 '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는 예외적인 결합에 해당한다.

* **오답 설명**

① ‘수픐(수플+ㅅ)’은 무정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다는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을 따른 경우에 해당한다. 후행하는 ‘神靈(신령)’이 존칭의 유정 명사인 것과는 무관하다.

② 선행 체언인 ‘놈’이 유정 명사이면서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관형격 조사 ‘ᄋᆡ’가 결합하였다.

③ ‘世界(세계)’가 ‘보샤’의 의미상 주어가 아니며, 무정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것이므로 예외적 결합 또한 아니다.

④ ‘사ᄅᆞᆷ(사람)’이 ‘잇ᄂᆞᆫ’의 의미상 주어는 맞지만 ‘사ᄅᆞᆷ’은 평칭의 유정 체언에 해당하므로 ‘ᄋᆡ’와 결합하는 것은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결합이 아니다.

[37] 통사론

- 시제, 서술어의 자릿수, 안긴문장의 기능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통사론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다루면서도 복합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인 문법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느냐가 선지 판단의 핵심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다루어진 개념들이지만, 문장에서 이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파악해야 했으므로 다소 까다로웠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 37번 (오답률 44%)

* **정답 설명 : ②**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에서 ‘사시는지요’에는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결합하여 현제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는-’이 쓰였으며, 이때 서술어로 쓰인 동사 ‘살다’는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의 의미로 쓰여,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는 〈보기〉에 제시된 ⓐ, ⓑ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예문에 해당한다.

＊ 오답 설명

①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에서는 받침 없는 동사 어간 뒤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인 '-ㄴ-'이 쓰였으므로 ⓐ의 조건은 실현되었으나, 해당 문장의 서술어로 쓰인 동사 '자라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에 해당하므로 ⓑ의 조건은 실현되지 않았다.

③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에서는 서술어인 형용사 '있다'와 '조용하다'의 어간 뒤에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아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의 조건은 실현되었으나, 안긴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의 조건은 실현되지 않았다.

④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에서는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라는 명사절이 부사격 조사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의 조건은 실현되었으나, 동사 '마음먹다'의 어간 뒤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하였으므로 ⓐ의 조건은 실현되지 않았다.

⑤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에서는 문장의 서술어 '슬다'가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하지만, 안긴문장의 서술어인 '받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 해당 문장에서 안긴문장은 관형사절인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으로 나타나 '책'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의 조건은 실현되지 않았다.

[38] 음운론

- 표준 발음을 바탕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라는 음운 변동의 적용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표준 발음에 적용된 음운 변동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은 꾸준히 다루어진 유형이지만, 주어진 사례의 표준 발음을 추론하여 이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적용 유무를 판단해야 했으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됐을 것이다.

[39] 담화

- 담화 표현의 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꾸준히 다루어진 개념과 유형이므로 그 형식은 익숙했을 것이다. 그러나 담화 표현이 지시하고 있는 대상 또는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담화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을 것이다.

02. 매체

총평

- 대체로 평이했으며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통과목에서부터 시간 분배를 체계적으로 했다면 체감 난도는 낮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간에 쫓겨 41번 또는 42번의 몇몇 선지에 대해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다. 출제 형식은 '매체-언어 통합' 4문항, '매체' 2문항으로 '언어와 매체' 선택과목이 신설된 후 치러진 두 번의 수능과 동일한 형식이다. 올해 6월 모의평가와 지난 평가원 기출문제를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매체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것으로 보인다. 매체에 따른 특성이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 매체 자료 수용 양상 및 제작, 매체 언어 표현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매체들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학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EBS 교재에서는 교과서에 비해 더 다양한 매체를 다루고 있으므로 EBS 교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40~43] 매체-언어 통합(보이는 라디오) : 등대 스탬프 여행 소개

- '보이는 라디오'라는 매체는 처음 출제되었지만 EBS 교재를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그 특성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문에 올드 미디어인 라디오의 특징, 뉴 미디어인 인터넷 방송의 특징 모두를 파악할 수 있는 표현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해당 매체가 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라디오 스튜디오 화면을 시청할 수도 있는 매체라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 문항 구성은 매체의 '정보 전달 방식(40번), 매체 자료 수용 양상(41번), 매체 자료 생산(42번), 매체 언어 표현(43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41번 문항에서 매체 자료의 수용 양상을 묻는 문항의 경우 지금까지 출제되어 왔던 문항과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 지금까지의 기출문항에서 매체 자료 수용자들의 반응은 매체 자료의 신뢰성, 타당성, 시의성 등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식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문항에서는 수용자가 매체 자료 내의 내용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수용자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리고 42번 문항에서는 생산된 매체 자료에 생산 계획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묻고 있다. (가)에 제시된 보이는 라디오 지문 내용과 (나)에 제시된 생산 계획, 42번에 제시된 매체 자료 모두를 고려해서 정답을 찾게 했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항 해설 : 42번 (오답률 37%)

＊ 정답 설명 : ⑤

'△△ 등대'에 대한 슬라이드[→ ㉡]에는 (가)에서 여행가가 언급한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 등대'라는 말을 가져와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이는 '△△ 등대'의 특징, 주소, 스탬프 위치, 볼거리, 먹을거리, 재밋거리라고 하는, 해당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⑤번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①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에 대한 슬라이드[→ ㉠]에는 (가)에서 여행가가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에 대해 언급한 부분[→ '우선 모바일 여권과 종이 여권 중~누리집에서 완주 인증을 하시는 거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을 정리하여 하나의 슬라이드로 구성했다.

② ㉠에는 여행의 순서를 구분하고 차례가 드러나도록 글 상자와 화살표를 사용했다.

③ ㉠에는 모바일 여권, 종이 여권, 스탬프, 사진기, 등대, 오르골 등 여행가가 소개한 여행 순서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그림 자료로 제시했다.

④ '△△ 등대'에 대한 슬라이드[→ ㉡]에는 '△△ 등대'의 특징, 주소, 스탬프 위치, 볼거리, 재밋거리 등 여행가가 언급한 먹을거리 이외의 다양한 정보를 추가했다.

[44~45] 매체(전자 문서-누리 소통망) : 체중계 사용 설명

- 지문에 완결된 줄글이 아닌 짤막한 정보가 제시된 것은 지난해 수능 '매체-언어 통합' 세트에서 누리집 화면과 공모전 공고문이 출제되었던 것과 비슷한 기조라고 볼 수 있다. 이 세트에서는 체중계의 사용 설명서와 함께 설명서를 활용하는 할머니와 손주의 누리 소통망 대화가 출제되었다. 아주 빈번하게 접하지는 않더라도 뉴 미디어를 통해 접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 설명서를 매체 자료로 제시했다는 것은 신선한 시도로 보인다.
- 문항 구성은 '매체 자료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44번), 매체 활용 이해(45번)'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용 설명서나 누리 소통망의 내용을 세세하게 묻기보다는 사용 설명서가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이 사용 설명서를 수용자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 개괄적인 양상을 묻고 있다. 정보량이 많지 않고 선지들 역시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III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감 연계 양상

독서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사회 [4~7]	공포 소구 연구	수능특강 111쪽 (이감 중요도 C)	-
기술 [8~11]	고체 촉매의 구성	수능특강 182쪽 (이감 중요도 AA)	시즌2 2차 모의고사 간쓸개 시즌2 5차
인문 통합 [12~17]	확장 인지 이론과 몸의 현상학	수능특강 11쪽 (이감 중요도 AA)	시즌3 4차 모의고사 간쓸개 시즌3 4차

문학

세부 영역	작품	EBS 연계	이감 연계
고전산문 [18~21]	작자 미상, 「상사동기」	수능특강 19쪽 (이감 중요도 B)	간쓸개 시즌3 4차
고전시가 + 수필 [22~26]	(가) 권호문, 「한거십팔곡」 (나) 김낙행, 「기취서행」	수능특강 312쪽 (이감 중요도 AA) 비연계	시즌2 1차 모의고사 이감ON 3차 모의고사 간쓸개 시즌2 3차 간쓸개 시즌3 4차
현대소설 [27~30]	최명익, 「무성격자」	비연계	-
현대시 [31~34]	(가) 조지훈, 「맹세」 (나) 오규원, 「봄」	수능특강 78쪽 (이감 중요도 C) 비연계	-

화법과 작문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화법 [35~37]	한글 대중화에 힘쓴 주시경, 최현배 (강연)	비연계	시즌2 1차 / 2차 모의고사 이감ON 3차 모의고사 시즌3 3차 / 4차 모의고사 화법과 작문 N제
화법 - 작문 통합 [38~42]	규격화된 초보 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토론-소감문)	비연계	시즌2 2차 모의고사 시즌3 2차 / 3차 / 4차 모의고사 이감ON 4차 모의고사 화법과 작문 N제
작문 [43~45]	학교 공간 바꾸기 (정보 전달 글)	수능특강 74쪽, 130쪽	시즌2 1차 / 2차 모의고사 시즌3 1차 / 2차 / 3차 모의고사 이감ON 3차 / 4차 / 5차 모의고사 강대 1차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국어사 [35~36]	중세 국어 격조사 결합 원칙의 예외	수능특강 84쪽	시즌3 3차 모의고사 이감ON 1차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N제
통사론 [37]	시제, 서술어의 자릿수, 안긴문장 파악	수능특강 69쪽, 97쪽, 98쪽	시즌3 1차 모의고사 이감ON 4차 / 5차 모의고사 강대 1차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N제
음운론 [38]	음운 변동	수능특강 59쪽	시즌3 4차 모의고사 이감ON 2차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N제
담화 [39]	담화 맥락과 지시 대상	수능특강 81쪽, 109쪽	시즌2 1차 모의고사 이감ON 3차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N제
매체 - 언어 통합 [40~43]	등대 스탬프 여행 소개 (보이는 라디오)	수능특강 223쪽	시즌2 1차 / 2차 모의고사 시즌3 2차 / 4차 모의고사 이감ON 1차 / 2차 / 3차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N제
매체 [44~45]	체중계 사용 설명 (전자 문서-누리 소통망)	수능특강 115쪽	시즌2 1차 모의고사 시즌3 1차 / 2차 / 3차 모의고사 이감ON 1차 / 3차 / 4차 / 5차 모의고사

독서 : 기술 — 부수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촉매'와 관련하여 '고체 촉매'의 구성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감 지문에서는 인체에서의 '촉매'인 효소에 대해 설명하면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음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 한다.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화학 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된다.

활성 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다.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되고,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된 후,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된다.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되어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된다. 흡착된 반응물은 [redacted] 공유하여 안정화된다. 반응물의 [redacted] 따라 달라진다. 이때 흡착 세기가 [redacted] 흡착량이 적어 촉매 활성이 낮으며, [redacted]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표[redacted] 촉매 활성이 낮다.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이감 모의고사 2-2

인체에서 생명 유지를 위해 일어나는 수많은 화학 반응에는 다양한 효소들이 관여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 물질이 해당 반응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화학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거나, 긴 시간이 소요된다. 화학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주위 온도를 높여 반응 물질이 쉽게 열에너지를 흡수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촉매를 통해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출 수도 있다. 효소는 인체 내의 화학 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한다.

효소의 촉매 역할은 보통의 촉매와는 다른, 기질 특이성에 의존한다. 이는 반응 물질인 기질과 결합할 수 있는 활성 부위가 효소마다 고유한 형태를 가져서 특정 기질과만 결합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그런데 인체에서는 화학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효소는 보통의 촉매와 달리 활성이 엄격히 통제된다. 이와 관련한 여러 통제 방식이 있는데,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 대표적이다.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에 의해 활성이 통제되는 효소를 앨러스테릭 효소라 한다. 앨러스테릭 효소는 동일한 입체 구조를 [redacted] 합한 구조를 띠며, 소단위마다 활성 [redacted] 효소 하나에 기질 분자 네 개가 [redacted] 이 효소는 불안정하여 활성 상태 [redacted] 적으로 오간다. 이에 따라 소단위 [redacted] 해도 변해서 각각의 상태에서 조절 부위와 결합할 수 있는 물질도 달라진다. 앨러스테릭 효소가 활성 상태 혹은 비활성 상태일 때 조절 부위와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 조절 부위 중 하나와 결합하면, 효소는 안정화되면서 활성 상태나 비활성 상태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게 된다. 이때 이 효소를 활성 상태로 안정화하는 물질을 활성자, 비활성 상태로 안정화하는 물질을 억제자라고 한다.

지문 적중

독서 : 기술 — 부수 소재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촉매'와 관련하여 '고체 촉매'의 구성에 대해 다루었다면 간쓸개에서는 마찬가지로 '활성화 에너지'와 관련하여 '촉매'의 역할에 대해 동일한 예시를 활용하면서 설명하였음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 한다.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화학 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된다.

흡착될 수 있어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되어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된다.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여 안정화된다.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한다.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 촉매 활성이 낮으며,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redacted] 촉매 활성이 낮다. 일반적으로 고[redacted]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redacted] 활성이 높아진다.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 화[redacted]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소결이라 한다. 입자가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은 줄어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지체이다.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다.

증진제는 촉매에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절한다.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제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간쓸개 2-5 EBS 수특 집중팩

하버가 암모니아의 대량 생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압력과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미 알려져 있던 촉매 현상을 활용한 데 있었다. 촉매란 화학 반응 중에 자신은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만 변화시키는 물질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을 정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물질을 부촉매라고 한다. 정촉매에 의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그만큼 충돌에 의해 반응이 나타나는 입자수가 늘어나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하버는 1만 번에 가까운 실험을 통해 철, 산화칼륨 등의 고체가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 효과적인 촉매임을 알아냈다. 질소와 수소가 혼합된 기체에 철을 넣으면 철의 자유 전자에 의해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철의 표면에 흡착된다. 이후 촉매 표면의 분자들은 분자 내의 결합의 힘이 약해져 원자들로 해리되며, 이들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암모니아 분자가 생성된 후 촉매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다.

촉매를 활용하여 수득률을 높이는 하버의 방법에 보슈는 압력을 안정적으로 200기압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더했고, 이후 암모니아 대량 생산 방법은 '하버-보슈법'이라 불리게 되었다. 하버-보슈법은 농작물의 증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문 적중

독서 : 통합 — 부수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에서 '심신 문제'와 관련하여 동일론(물리주의), 기능주의, 확장 인지 이론을 소개하였다면,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 지문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심신 문제'에 대한 각각의 이론들을 소개하였음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며,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설(Searle)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한다.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다.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이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됨'은 몸 맞물려 벌어진다. 기억나지 않는 정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이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감 모의고사 3-4
간쓸개 3-4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은 구분되며, 불안감이 몸을 움츠리게 하거나 찔림이 통증을 유발하는 것처럼 둘 사이에는 상호 인과적인 작용이 있다. 나아가 우리는 물리 법칙이 그러하듯 인과 관계가 있으면 그에 관한 법칙이 지배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불안감이 항상 몸을 움츠리게 하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둘 사이에 항상 엄격한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우리의 직관은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와 법칙에 관해 모순에 빠진 듯 보인다. 데이비드슨은 자신이 정립한 무법칙적 일원론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리적인 신체 없이 의식만으로 이루어진 존재자를 X라 하자. 우리는 X의 존재를 온전하게 상상할 수 있을까? 철학자들이 이 물음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러한 상상을 할 수 있다면 정신 상태와 물리 상태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물리주의가 옳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와 b가 자연종 명사일 때 "a는 b와 동일하다."라는 문장을 ㉠종 동일성 문장이라 한다. 자연종 명사는 자연에 있는 특정 종(種)이나 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물은 동일성 문장은 '물'이 지칭하는 자연의 물이 동일하다는, 종의 자기 동일성 가 지칭하는 것이 현실에서 실제 동일 으로 참이라면, 그것이 거짓인 상황을 상상할 수 없으므로 그 문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없어서 필연적으로도 참이다. 철학자들은 어떤 종 동일성 문장이 거짓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즉 그 문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서 필연적 참이 아니라면,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참이 아니라고 본다.

소재 적중

문학 : 고전산문 — 작품 적중

• 「상사동기」 중, 영영과 김생의 만남에 대한 내용을 간쓸개에서 공통으로 활용함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그런 애가 있습죠. 바로 죽은 제 언니의 딸이에요. 이름은 영영이고 자(字)는 난향이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한가?"

"이 애는 회산군 댁 시비예요. 궁에서 나고 자라 문 앞길도 밟지 못한 지 오래랍니다. 자색(姿色)이 고운 것은 낭군께서 이미 보셨으니 굳이 말할 것 없지만 고운 마음이며 얌전한 몸가짐은 양반집 규수와 다를 게 없지요. 게다가 음률과 문장을 알아 나리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장차 소실(小室)로 맞으려 하셨지만, 부인의 시샘이 하동의 사자후보다 심하여 그렇게 못 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지난번 그 애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식 때를 맞아 그 애가 어미의 제사를 이곳에서 지내려고 부인께 말미를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때마침 나리께서 외출하신 터에 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던들 낭군께서 어찌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낭군께서 다시 만나시기는 참으로 어렵습죠. 참으로 어려워요!"

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아, 끝난 것이로구나! 나는 필시 죽겠구나!"

노파가 안타까워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말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죠. 단오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이 몸이 죽은 언니를 위해 세사상을 차리고 부인께 영영에게 반나절의 말미를 주도록 청한다면, 만에 하나 낭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낭군께선 돌아가시어 때를 기다렸다가 오시지요."

생이 기뻐하며 말했다.

"할멈 말대로 된다면야 인간의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

생과 노파는 각각 만복을 기원하며 헤어졌다.

– 작자 미상, 「상사동기」 –

간쓸개 3-4

"의심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너라. 너는 이 도련님을 모르지? 이분은 내 죽은 남편의 먼 친척이니라. 마침 누추한 우리 집에 오셨다가 장차 손님을 전송하기 위해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늦었느냐? 나는 네가 끝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너의 부모님 제사를 이미 지냈단다. 너는 빨리 안으로 들어와 술상을 차려서 도련님과 나에게 술이나 한잔 올리는 것이 좋겠다."

영영이 노파의 말대로 술상을 받들고 들어오자, 노파는 김생과 함께 술잔을 주고받았다. 술이 얼근하자 김생이 영영에게 말했다.

"낭자도 들어와 앉으시오. 내가 잔을 드릴 때가 되지 않았소."

영영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노파가 영영에게 말했다.

"너는 깊은 궁중에서 자라서 세상의 정리(情理)가 어떤지 모르는구나. 너는 글을 잘 알면서도, 술잔을 주고받는 예의는 알지 못하느냐?"

영영은 잔을 받아 들고 잠시 주저하다가, 향기로운 술잔을 붉은 입술에 살짝 대었다 떼기만 했다. 잠시 후에 노파는 짐짓 취한 척하면서 나태하게 앉아 있다가, 졸린 듯 하품을 하면서 영영을 돌아보고 말했다.

"㉢내가 술기운 때문에 피곤하고 기운도 평온치 못해 조금 쉬고자 하니, 네가 잠시 도련님을 모시고 있거라."

[A]
게 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소?"

영영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한 당신도 제가 아닌데, 어떻게 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김생이 그 말을 듣자 자리를 가까이 옮겨 앉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원망스럽구려. 그대는 어찌 이다지도 무정하오? 서로 만난 뒤로 다시는 보지 못하면서 그리워한 것이 벌써 몇 달이거늘, 아아, 그대인들 어찌 슬프지 않았겠소? 내가 낭자를 기다리다 이제 오셨으니 비로소 소생하게 되었소."

영영은 미소만 짓고 대답하지 않았다.

– 작자 미상, 「상사동기」 –

문학 : 고전시가 — 작품 및 선지 적중

- 「한거십팔곡」의 제시문이 상당 부분 일치함
- 지문에서 문제화한 지점 및 문항에서 묻는 내용이 일치함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 십재 황황(十載遑遑)*하노라
<제1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
무심 어조(魚鳥)는 절로 한가하였나니 [A]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
<제3수>

출(出)하면 치군택민* 처(處)하면 조월경운*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
<제8수>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 없어** ┐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B]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一毫末)도 없다 ┘
<제13수>

성현의 가신 길이 ㉢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가 어찌 다르리** [C]
한가지 길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덴들 어떠리 ┘
<제17수>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 백세(百歲)인들 길겠느뇨
㉤ 십 년 전 진세(塵世)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
<제19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 십재 황황 : 십 년을 허둥지둥함.
* 치군택민 :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풂.
* 조월경운 : 달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갊.

이감 모의고사 2-1
간쓸개 2-3 / 3-4

(가)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 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온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 경운(釣月耕雲)*
명철 군자(明哲君子)는 이를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는 위기**라 빈천거(貧賤居)를 하오리라 <제8수>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은(隱)커나 현(現)커나 도(道)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가 다르지 않으니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강변에 누워서 강수(江水) 보는 뜻은
서자 여사(逝者如斯)하니* **백세(百歲)인들 몇 근이랴**
십 년 전 진세(塵世) 일념(一念)이 얼음 녹듯 한다
〈제19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강가에 누워서 강수(江水) 보는 뜻은
가는 것 저와 같으니 **백세(百歲)인들 몇 근이료**
십 년 전 진세 일념(塵世一念)이 얼음 녹듯 한다 〈제19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화자의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 온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
② ㉡은 화자가 돌이켜 보는 삶의 기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을 나타낸다.
③ ㉢은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한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까지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①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태도는 <제8수>에서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③ <제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에는 <제1수>의 '이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⑤ <제17수>에서 '아무 덴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까지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①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태도는 <제8수>에서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③ <제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에는 <제1수>의 '이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⑤ <제17수>에서 '아무 덴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과거 급제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대부의 작품이다. 두 작품의 작가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인식이나 현재의 처지를 수용하는 자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① (가)의 작가는 자신이 과거 공부에 힘쓴 것이 '충효'를 실천하기 위해서였다고 하고 있고, (나)의 작가는 자신이 과거에 급제하려 한 것이 '부귀'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하고 있군.
② (가)에서는 '십 년을 허둥대노라'를 통해, (나)에서는 '소년만 가단 말가'를 통해 작가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음을 알 수 있군.
③ (가)의 '갈 데 몰라 하노라'와 (나)의 '제 신명 저 몰라서'는, 과거 준비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뇌했던 당시 작가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군.
④ (가)는 '부귀는 위기'라는 말로 과거 준비를 그만둔 이유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달 아래 글을 읽고 비 뒤에 밭을 가'는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는 말로 좌절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군.
⑤ (가)의 작가는 '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현재 삶을 긍정하고 있고, (나)의 작가는 '지천명'의 나이에 '내 신명'을 알게 되었다는 말로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고 있군.

28.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총 19수로 이루어진 연시조 「한거십팔곡」은 각 수의 내용이 병렬적이거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상의 연관 관계와 시간상의 선후 관계에 따라 짜여 있다. 화자는 벼슬길에 나설 것인가, 자연을 즐기며 은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출(出)과 처(處)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속세에 대한 미련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이르고 있다.

② 〈제4수〉의 '갈 데 몰라 하노라'에 나타난 갈등은 〈제17수〉의 '아무 덴들 어떠리'에 담긴 인식과 대응하고 있군.
⑤ 〈제19수〉의 '백세인들 몇 근이랴'에는 '십 년 전 진세 일념'을 포기한 뒤에 찾아든 공허함이 제시되어 있군.

14. (가)의 각 수를 연결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수〉의 '충효'는 〈제4수〉에서 '소락'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② 〈제1수〉의 '십 년'은 〈제19수〉의 '십 년'에 연결되어 삶의 태도가 변하였음을 보여 준다.
③ 〈제4수〉의 '강호에 놀자' 하는 바람은 〈제13수〉에서 '월하에 누웠으니'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가)에는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나)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한편 (나)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① (가)의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② (나)의 '궁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엿볼 수 있군.
③ (가)의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은 모습을, (나)의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에서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④ (가)의 '도무지 할 일 없어'에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나)의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 대'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⑤ (가)의 '도가 어찌 다르리'에서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이 해소되었음을, (나)의 '의를 잃'은 것에 대해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하겠다는 다짐에서 성찰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29. 출과 처를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수>에서 '충효'를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었다는 것은, '출'하는 삶을 통해 신하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제3수>에서는 <제1수>에 제시된 삶의 목표를 '못 이뤄도 임천이 좋'다는 말을 통해, '처'하여 자연을 즐기고 싶다는 개인적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③ <제4수>에서는 <제3수>의 '세사 잊고' 은거하려는 소망이 '성주를 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처'하는 삶을 마음 편히 택하지 못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④ <제8수>에서는 '빈천거를 하'겠다고 하여, <제4수>에서 '기로'로 표현되었던 '출'과 '처'의 선택이라는 문제에 대해 '처'를 택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제17수>에서 '성현의 가신 길'이 '한가지'임을 강조한 것은, <제8수>의 '출'하는 삶과 '처'하는 삶을 모두 '즐기'려 하는 '명철 군자'에 대한 비판을 의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법과 작문 : 화법 — 문항 및 선지 유사

- 강연 혹은 발표 형식에서 말하기 방식의 파악을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어 왔음
- 강연 혹은 발표 형식에서 청중의 듣기 활동에 대해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어 왔음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35.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의 특성을 보여 주는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②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달하고 있다.
③ 대조를 통해 두 인물 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④ 준언어적 표현을 조절하여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⑤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

이감 모의고사 3-3 화법과 작문 N제

35.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
②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고 있다.
③ 강연 중간중간에 청중이 던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④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⑤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강연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35.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강연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②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강연 중간중간에 청중이 던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④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고 있다.
⑤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환기하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

35.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강연 내용과 관련된 특정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②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력을 열거하고 있다.
③ 강연 중간중간에 청중이 던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④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강연 내용을 구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강연의 도입부에서 강연 내용의 진행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37. 강연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에 제시된 청중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청중 1: 한글 학회의 출발점이 국어 연구 학회였음을 알게 되었어. 국어 연구 학회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찾아봐야겠어.

청중 2: 조선어 학회 사건에 대한 발표를 맡았는데 강연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최현배 선생이 옥중에서도 한글을 연구했다는 내용을 발표에 추가해야지.

청중 3: 주시경 선생의 저서를 별다른 설명 없이 제목만 알려 줘서 아쉬웠어. 그 저서들이 어떤 내용인지 찾아봐야겠어.

① 청중 1은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을 강연 내용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있군.
② 청중 2는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군.
③ 청중 3은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④ 청중 1과 3은 강연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군.
⑤ 청중 2와 3은 강연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군.

36. 다음은 학생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침엽수보다 활엽수를 많이 심을 때 왜 산림이 더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걸까?
- 산림이 공기를 정화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것은 알았지만 댐의 기능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 알게 되어 좋았어.
- 산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모집하는 □□산 가지치기 봉사 활동에 참여해 봐야겠어.
- 유기물을 먹이로 하는 지렁이가 공극을 만드는 토양 생물 중 하나에 해당하겠구나.

①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을 떠올리며 들었다.
②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들었다.
③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들었다.
④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들었다.
⑤ 강연에서 미처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해 볼 것을 다짐하며 들었다.

37.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수장고에 직접 들어가서 소장품을 볼 수도 있다니 재미있을 것 같아. 어떤 소장품이 있는지 예를 들어 소개해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아쉬웠어.

학생 2: 예전에 국립 현대 미술관의 개방형 수장고를 관람한 적이 있는데, 국립 민속 박물관에도 있었구나. 개방형 수장고가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더 있는지 궁금해.

학생 3: 검색을 해 보니 수장고에 있는 소장품들의 정보는 따로 마련된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소장품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 주었다면 더 유익했을 것 같아.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을 떠올리고 있다.
⑤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부족했던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화법과 작문 : 화법-작문 통합 — 문항 및 선지 유사

- 토론의 입론에 대해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음
- 토론의 반대 신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음
- 문단별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음
- 고쳐쓰기에 반영된 조언을 추론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음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 (가)의 '찬성 1'의 입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핵심 용어를 정의한 후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② 외국의 사례를 분류하여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③ 특정 경험을 활용하여 기존 정책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④ 최근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정책이 변화한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감 모의고사 3-3 / 3-4 화법과 작문 N제

39. (가)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찬성 1'은 유료 패스트 트랙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유료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 해외 공항의 예시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유료 패스트 트랙에 대한 이용객의 긍정적 인식을 보여 주는 통계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반대 1'은 유료 패스트 트랙 도입에 대한 정부 부처의 부정적 견해를 인용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⑤ '반대 1'은 유료 패스트 트랙 도입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39. (가)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찬성 1'은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논제와 관련된 기대 효과를 제시하여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논제에서 다뤄지는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④ '반대 1'은 논제와 관련된 해외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다.
⑤ '반대 1'은 상대측의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9. (가)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찬성 1'은 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논제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 '반대 1'은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반대 1'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39. 반대 신문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상대가 근거로 인용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② ㉡은 초보 운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면 사고가 감소한다는 상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③ ㉢은 상대의 주장이 경력 운전자의 입장만 반영하여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④ ㉣은 상대의 주장을 비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⑤ ㉤은 초보 운전 표시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는 일이 실행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

41. (나)를 작성할 때 활용한 내용 조직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문단에서는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제시하였다.
② 2문단에서는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다.
③ 2문단에서는 토론에 활용할 자료를 수집한 경로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였다.
④ 3문단에서는 말하기 불안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제시하였다.
⑤ 3문단에서는 토론 활동에 대한 평가를 대비의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40.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의 '반대 2'는 상대측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하며 추가 자료를 근거로 들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② [A]의 '찬성 1'은 상대측이 제시한 근기의 조사 시기를 언급하면서 최신의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B]의 '찬성 1'은 상대측이 제시한 내용이 논점에서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논점에 부합하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④ [B]의 '반대 1'은 상대측이 제시한 내용을 인정한 후 자신의

40.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A]의 '반대 2'는 상대측이 제시한 설문 자료의 수치를 언급하며 자료의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② [A]의 '찬성 1'은 상대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하며 추가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B]의 '찬성 1'은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반례를 제시하며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④ [B]의 '반대 1'은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다.
⑤ [A]의 '반대 2'와 [B]의 '찬성 1'은 모두 상대측이 제시한 내용이 논점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논점에 부합하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3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상대측이 제시한 내용이 논점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논점에 부합하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② [A]는 상대측이 제시한 사례가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합한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B]는 상대측이 제시한 보고서의 출처를 언급하고, 보고서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④ [B]는 상대측이 제시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고, 반대 사례

39. (가)를 작성할 때 활용한 내용 조직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문단에서는 환경부가 수도 정비 기본 변경 계획안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나열한다.
② 2문단에서는 ○○ 저수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전개된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한다.
③ 2문단에서는 시민 단체가 환경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비상 취수원 해제에 반대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④ 3문단에서는 ○○ 저수지가 비상 취수원에서 해제될 경우에 △△시가 물을 공급받는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⑤ 4문단에서는 비상 취수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한 다른 시의 사례를 제시한다.

42. 다음은 [A]를 고쳐 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영된 교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번 토론을 준비하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료 조사와 말하기 연습을 한 결과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또 토론 중 상대의 발언을 잘 들었더니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사회적 쟁점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중요성을 알았다.

① 토론의 경쟁적 속성이 지닌 장점만 다루고 있으니, 단점도 함께 제시해 보렴.
② 토론에서 배운 점만 다루고 있으니, 시행착오와 이를 보완할 계획을 모두 제시해 보렴.
③ 토론에서 자료 조사의 어려움만 다루고 있으니, 토론 중 겪은 어려움도 함께 제시해 보렴.
④ 토론 준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니, 실제 토론을 하면서 깨달은 점도 함께 제시해 보렴.
⑤ 토론 준비 과정에서의 개인적 노력만 다루고 있으니, 협력하며 준비하는 토론의 가치도 함께 제시해 보렴.

42. <보기>는 (나)의 마지막 문단의 초고이다.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해 친구들이 조언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토론회를 방청한 후 나는 유료 패스트 트랙 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찬반 양측의 논거를 확인하고 나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내에서 이와 같은 토론회가 활발하게 개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① 이번 토론회 개최에 담긴 의미를 밝혀 주는 것이 어때?
② 예상 독자들에게 토론회 방청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해 보는 것이 어때?
③ 토론회를 방청한 후에 특정 입장에 동의하게 된 이유를 밝혀 주는 것이 어때?
④ 토론회를 방청하면서 어떤 입장에 동의하게 되었는지 제시하는 것이 어때?
⑤ 이번 토론회에서 나타난 찬반 양측의 논거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어때?

45. <보기>는 [A]를 고쳐 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영된 선생님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이처럼 작은 도서관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을 확대하면, 우리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이 이용자 감소와 운영 부실로 문을 닫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도서관들이 사라지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장소로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과 지방 자치 단체를 비롯한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① 예상 독자가 언급되지 않았으니 예상 독자에게 호소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게 어때?
② 해결 방안의 효과가 언급되지 않았으니 실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내는 게 어때?
③ 주장하는 바의 실현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비슷한 사례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드러내는 게 어때?
④ 앞서 주장한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니 이를 삭제하고 글의 요점을 한 번 더 제시하는 게 어때?
⑤ 해결 방안의 한계점에 대해 다루지 않았으니 한계점을 언급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어때?

화법과 작문 : 작문 — 지문 유사

- 이감 모의고사에서 학교 공간 바꾸기의 한 분야인 도서실 재단장을 다룬 지문이 제시된 바 있음
- 초고에 활용한 글쓰기 방법(쓰기 전략)을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음
-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활용 방안을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음
- 조언을 반영하여 추가 작성한 문단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음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45] (가)는 기획 기사를 연재 중인 학교 신문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이 작성한 〈2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나) <2편>의 초고

학교는 학생들이 집 다음으로 오랜 시간 생활하는 공간으로 제2의 집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를 생각하면 네모난 교실에서 칠판을 향해 앉아 있는 학생들이 떠오른다. 학교는 학습 기능을 수행하는 효율적 공간임에 틀림없지만, 지적 성장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학습을 위한 공간에 집중되어 있어 아쉽다. 그래서 3층과 4층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서편 끝 교실을 새롭게 바꿀 것을 제안한다.

먼저 학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바깥 풍경이 아름답고 조용한 4층 교실을 '사색의 방'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이곳은 통창을 설치해 산과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창가 의자에 앉아 쉬며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창을 통해 자연을 느끼며 안정을 찾고 성찰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 공간은 집기로 채우지 않고 편안한 음악 소리로 채우되, 인공조명은 최소화한다.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이 방은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곳으로서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것이다.

3층 교실은 '어울림의 방'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이곳은 교실과 복도 사이의 벽을 없애 누구나 드나들기 쉽도록 한다. 또 바닥은 자유롭게 앉거나 누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모퉁이 공간을 활용하여 친한 친구들끼리 소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서로의 고민을 터놓을 수도 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관계를 형성하는 이 방은 사회적 성장을 위한 곳으로서 학생들이 또 오고 싶은 공간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바라는 이런 공간이 우리 학교에 생긴다면 학교생활이 얼마나 행복할까?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을 위한 학교 공간의 조성으로 나의 생각은 커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는 학업에도 더욱 열중할 수 있는 동력이 되며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할 것이다.

이감 모의고사 2-2 / 3-1 언어와 매체 N제

[38~42] (가)는 ○○고 학생이 도서실 재단장 설계에 참여한 뒤 학교 신문에 기고한 후기이고, (나)는 이를 읽은 다른 학교 도서부원들이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도서부원들은 우리 학교의 도서실을 재단장하는 설계에 학생 이용자로서 참여했다. 이용자들에게 더 편리한 도서실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댄 도서부원들의 고민이 녹아 있는 새로운 도서실은 이제 여러분들을 맞이할 채비를 마쳤다.

재단장 설계는 지난 학기 동안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도서실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열람 공간의 딱딱한 의자와 삐걱거리는 책상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더불어 부족한 서가를 확충하고 도서부가 주최하는 저자 초청 강연을 진행할 공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다른 도서관들의 모습을 담은 여러 영상을 보면서 크기가 작은 우리 도서실에 우리의 의견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았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설계안을 그렸다.

우리의 설계안은 방학 중 진행된 도서실 공사에 반영되었다. 이용자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 위치를 변경하지 않은 대출대와 게시판을 지나 열람 공간으로 가면 우리 설계안의 핵심 아이디어였던 계단식 서가를 만날 수 있다. 이 서가의 각 단에는 방석과 쿠션도 놓여 있어 그 위에 편안히 앉거나 누워 책을 볼 수 있으며, 저자 초청 강연 때에는 좌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책을 꽂아 둘 수 있는 서가이기에, 이것 외에는 새 서가를 추가하지 않았음에도 책들을 꽂아 둘 자리가 늘어났다.

공사를 마친 도서실 서가에 책을 모두 꽂아 두고 나니, 도서실에서 학생들을 빨리 맞이하고 싶어 설렜다. 작지만 알찬 이 공간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책을 읽고 강연도 들으며 자신의 꿈을 펼쳐 갈 것이다. 도서부원으로서 우리는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서실을 더욱 잘 가꿔 나가야겠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달라진 도서실을 더 자주 찾길 바란다.

43. '초고'에 활용된 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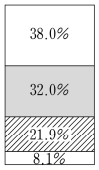
①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 공간의 구조를 비교하여 실태를 부각한다.
② 공간이 조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가정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한다.
③ 학교의 기능이 변화해 온 과정을 분석하여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④ 학교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반복하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드러낸다.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각 공간의 문제점을 나열하여 공간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44.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설문 조사 결과

우리 학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조용한 휴식 공간
자유로운 친교 공간
자연을 느끼는 공간
무응답

※ 대상 : 우리 학교 학생 700명

ㄴ. 전문가 인터뷰

"천장이나 벽을 없애는 형태적 확장, 투명한 유리 재료를 이용해 변화를 주는 시각적 확장을 통해 건축물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는 부분이 늘어나면 실내 공간의 개방감이 높아집니다."

ㄷ. 보고서 자료

1. 안정감을 주는 공간 구성	2. 청소년기의 심리 특성과 공간 구성
실내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창을 통해 자연과의 시각적 연결을 늘림. - 목재를 사용함. - 천연 소재 소품을 이용함.	청소년기는 자의식이 높아지는 시기로, 경계를 형성하는 벽을 없앤 공간에서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색의 대비, 부분 조명, 이동식 가구를 이용해 공간 분리 효과를 주면 부담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① ㄱ을 활용하여, 학습 이외 다른 용도의 공간 조성이 필요한 이유로 휴식 공간과 친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을 1문단에 추가한다.
② ㄷ-1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으로 창가 의자의 재질을 목재로 하고 천연 소재 방석을 비치할 것을 2문단에 추가한다.
③ ㄷ-2를 활용하여,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으로 모퉁이 공간에 이동식 가구를 비치해 공간 분리 효과를 줄 것을 3문단에 추가한다.
④ ㄴ과 ㄷ 1을 활용하여, 시각적 확장 효과를 주는 통창 설치를 제안하는 이유로 자연과의 시각적 연결이 늘어나 학생들의 안정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2문단에 추가한다.
⑤ ㄴ과 ㄷ-2를 활용하여, 벽을 없애 형태적으로 확장된 공간에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색이 대비되는 소품을 비치하고 부분 조명을 설치할 것을 3문단에 추가한다.

43. 초고에서 ㉠~㉢을 작성할 때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인터벌 트레이닝의 개념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② ㉡: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이 지닌 각각의 장점을 비교하여 제시했다.
③ ㉡: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번갈아 수행했을 때의 효과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④ ㉢: 인터벌 트레이닝을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연령대별로 제시했다.
⑤ ㉢: 인터벌 트레이닝을 수행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하여 제시했다.

45. 다음은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전문가 인터뷰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산소를 근육에 빠르게 보내기 위해 심장과 폐가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심폐 기능이 향상되지요. 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무산소 운동에 속하기 때문에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을 체내에 급격하게 축적하기도 합니다. 이 젖산의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운동을 한 직후 쉬지 않고, 가볍게 걷는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연구 보고서

18~60세의 남녀 9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전력 질주로 15초간 달린 뒤 45초간 천천히 걷는 운동을 반복하여 18분씩 주 3회, 다른 그룹은 중간 정도의 강도로 자전거 타는 운동을 45분씩 주 5회 시행하였다. 10주 뒤 두 그룹의 신체 변화를 비교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체력과 지구력이 비슷하게 향상되었으며, 체지방도 비슷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문 기사

인터벌 트레이닝은 하루에 10분에서 20분가량,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수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한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을 수행하는 비율은 1 : 2 정도가 적당하며, 근육 파열, 연골 손상 등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과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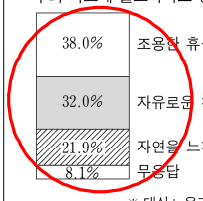
① (가)를 활용하여, 고강도 운동의 체력 증진 효과에 대해,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1문단에 추가한다.
② (가)를 활용하여, 저강도 운동을 통한 체내 피로 물질의 감소에 대해,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에 쌓인 젖산의 분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3문단을 구체화한다.
③ (나)를 활용하여, 인터벌 트레이닝의 운동 효과에 대해, 중간 정도의 강도로 더 많은 시간 운동한 것과 비슷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한다.

44.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설문 조사 결과

우리 학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 대상 : 우리 학교 학생 700명

ㄴ. 전문가 인터뷰

"천장이나 벽을 없애는 형태적 확장, 투명한 유리 재료를 이용해 변화를 주는 시각적 확장을 통해 건축물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는 부분이 늘어나면 실내 공간의 개방감이 높아집니다."

ㄷ. 보고서 자료

1. 안정감을 주는 공간 구성	2. 청소년기의 심리 특성과 공간 구성
실내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창을 통해 자연과의 시각적 연결을 늘림. - 목재를 사용함. - 천연 소재 소품을 이용함.	청소년기는 자의식이 높아지는 시기로, 경계를 형성하는 벽을 없앤 공간에서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색의 대비, 부분 조명, 이동식 가구를 이용해 공간 분리 효과를 주면 부담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① ㄱ을 활용하여, 학습 이외 다른 용도의 공간 조성이 필요한 이유로 휴식 공간과 친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을 1문단에 추가한다.

45. <보기>를 반영하여 ㉠의 1문단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고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편집부장 : 기획 연재의 <3편>을 작성하려고 해. 1문단은 도입 문단의 성격을 살려서 <2편> 초고의 핵심 내용과 <3편> 표제, 부제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자.

학교 공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 학습 공간 외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색의 공간, 어울림의 공간을 구상해 보았다. ⓑ 공간의 변화는 학생들이 학교를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하며,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 학교 공간 조성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지역 사회의 참여가 요구된다. 나아가 최근 ⓓ 국내외의 많은 학교들은 학생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생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 ⓔ 학생들이 학교 공간의 문제점을 찾거나 공간을 바꾸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국내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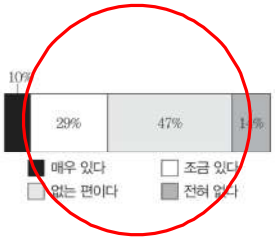
① ⓐ ② ⓑ ③ ⓒ ④ ⓓ ⑤ ⓔ

44.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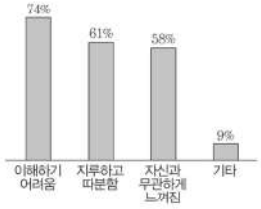
<보 기>

ㄱ. 우리 학교 학생들 대상 설문 조사

ㄱ-1. 다큐멘터리에 대한 흥미



ㄱ-2. 다큐멘터리에 흥미가 없는 이유(중복 응답)



ㄴ. 동아리 담당 선생님 인터뷰

"다큐멘터리는 소재를 다각도에서 접근하여 심도 있게 파헤쳐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장르입니다. 학생들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소재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습득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목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문제의 일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① ㄱ-1을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 중 다큐멘터리에 흥미가 있는 학생보다 흥미가 없는 학생이 더 많다는 점을 제시해야 겠어.

44. 다음은 (나)를 읽은 교지 편집부장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추가할 마지막 문단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지 편집부장 : 2문단에 제시된 계단 오르기의 세 가지 긍정적 효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단 오르기를 실천해 볼 것을 권유하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① 계단 오르기는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다. 게다가 하체 근력 강화는 물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② 계단을 오르는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계단 오르기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

③ 계단 오르기는 하체 근력 강화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질병 예방을 위해 일상에서 계단 오르기를 실천해 보면 좋을 것이다.

④ 계단 오르기를 할 때에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척추를 곧추세우고, 발은 앞꿈치를 내디디며, 양팔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⑤ 계단 오르기는 칼로리 소모에 효과적이고, 하체 근력 강화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계단 오르기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

언어와 매체 : 언어 — 문항 및 선지 유사

• 중세 국어의 격조사의 결합 원칙과 그 형태를 파악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룸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당한다.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이/의'가, 무정 체언 또는 존칭의 유정 체언에는 'ㅅ'이 결합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ㅅ'이 쓰일 자리에 '의'가 쓰였기 때문이다.

35. 윗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부사격 조사 '예'와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음절에서 반모음 'ㅣ'가 확인된다.
② ㉡에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면 '우희'가 된다.
③ ㉢은 현대 국어로 '저녁의'로 해석되어 관형격 조사의 쓰임이 확인된다.
④ ㉣의 '이그에'에서는 관형격 조사 '이'가 분석된다.
⑤ ㉤이 현대 국어에서 존칭 체언에 사용되는 것은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ㅅ'과 관련된다.

35. 윗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부사격 조사 '예'와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음절에서 반모음 'ㅣ'가 확인된다.
② ㉡에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면 '우희'가 된다.
③ ㉢은 현대 국어로 '저녁의'로 해석되어 관형격 조사의 쓰임이 확인된다.
④ ㉣의 '이그에'에서는 관형격 조사 '이'가 분석된다.
⑤ ㉤이 현대 국어에서 존칭 체언에 사용되는 것은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ㅅ'과 관련된다.

이감 모의고사 3-3 이감ON 1차 언어와 매체 N제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로는 'ㅅ', '이', '의'가 있었다. 선행 체언이 무정 명사일 때는 (1)과 같이 'ㅅ'을 취하였고, 유정 명사일 때는 (2), (3)과 같이 모음 조화에 따라 '이', '의' 등이 쓰였다. 다만 유정 명사이더라도 존칭의 대상일 때는 (4)와 같이 '이', '의' 대신 'ㅅ'이 쓰였다.

① ㉠을 보니, 중세 국어의 조사 '의'는 앞말이 처소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군.
② ㉡에는 앞 음절의 종성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 적는 방식이 적용되었군.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격 조사 '롤'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군.
④ ㉣에는 객체인 '太子'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⑤ ㉤에는 듣는 이인 '大臣'을 높이기 위한 어말 어미가 쓰였군.

38.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아래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여 중세 국어 조사의 쓰임에 대해 탐구해 볼까요?

○ 내 이 ᄯᅳ를 나하 길오니 [내가 이 딸을 낳아 기르니]
○ 각시 아ᄎᆡ 粉 ᄇᆞ르노라 [부인이 아침에 분을 바른다]
○ 님금하 아ᄅᆞ쇼셔 洛水예 山行 가
[임금이시여, 아십시오. 낙수에 사냥을 가]
○ 阿難아 ᄯᅩ 너의 ᄇᆞᆯ군 귀와 소리왜
[아난아, 또 네가 밝힌 귀와 소리가]
○ 즐거우믈 조초매 히미 네와 다ᄅᆞ니
[즐거움을 좇음에 힘이 옛날과 다르니]

학 생: _____ [A] _____

① '내'와 '각시'를 통해, 주격 조사가 앞말의 음운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군요.
② 'ᄯᅳ롤'과 '즐거우믈'을 통해, 목적격 조사가 모음 조화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군요.
③ '아ᄎᆡ'와 '洛水예'를 통해, 서로 다른 형태의 조사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군요.
④ '님금하'와 '阿難아'를 통해, 호격 조사가 존대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군요.
⑤ '귀와'와 '네와'를 통해, 하나의 조사 형태가 접속 조사와 격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군요.

36.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자 료>

ⓐ 수플(수플+ㅅ) 神靈이 길헤 나아
〔현대어 풀이 : 수풀의 신령이 길에 나와〕
ⓑ ᄂᆞ미(놈+의) 말 드러ᅀᅡ 알 씨라
〔현대어 풀이 : 남의 말 들어야 아는 것이다〕
ⓒ 世界ㅅ(世界+ㅅ) 일ᄋᆞᆯ 보샤
〔현대어 풀이 : 세계의 일을 보시어〕
ⓓ 이 사ᄅᆞᄆᆡ(사ᄅᆞᆷ+의) 잇ᄂᆞᆫ 方面을
〔현대어 풀이 : 이 사람의 있는 방면을〕
ⓔ 孔子의(孔子+의) 기티신 글워리라
〔현대어 풀이 : 공자의 남기신 글이다〕

① ⓐ : '神靈(신령)'이 존칭의 유정 명사이므로 '수플'에 'ㅅ'이 결합한 것이군.
② ⓑ : '놈'이 유정 명사이고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의'가 결합한 것이군.
③ ⓒ : '世界(세계)ㅅ'이 '보샤'의 의미상 주어이고, 'ㅅ'은 예외적 결합이군.
④ ⓓ : '이 사ᄅᆞᄆᆡ'가 '잇ᄂᆞᆫ'의 의미상 주어이고, '의'는 예외적 결합이군.
⑤ ⓔ : '孔子(공자)의'가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이고, '의'는 예외적 결합이군.

36. 윗글을 참고할 때, ㉠~㉤에 들어갈 조사의 형태가 같은 것을 모두 찾아 묶은 것은?

- 녯 사ᄅᆞᆷ+㉠ 마ᄅᆞᆯ (옛 사람의 말을)
- 구ᄅᆞᆷ+㉡ 氣運이 엷고 (구름의 기운이 엷고)
- 太子+㉢ 모미 傷ᄒᆞ야 (태자의 몸이 상하셔)
- ᄒᆞᆫ 바ᄂᆞᆯ+㉣ ᄂᆞᆯᄒᆞᆯ 셰여 (한 바늘의 날을 세어)
- 머리예 ᄇᆞᆷ+㉤ 터리 스고 (머리에 범의 털을 쓰고)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39.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다음은 중세 국어의 자료입니다. ㉠~㉤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① ㉠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샤-'가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② ㉡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연결 어미 'ㄷᆞ씨'가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③ ㉢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 'ᄅᆞᆯ'이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④ ㉣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체언의 원형을 밝혀 적었음을 알 수 있어요.
⑤ ㉤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높임의 대상과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언어와 매체 : 언어 — 문항 및 선지 유사

• 서술어의 자릿수와 안긴문장의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룸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37.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보기>의 조건이 실현된 예문을 만들어 보자.

<보 기>

ⓐ 현재 시제만 쓰일 것.
ⓑ 서술어의 자릿수가 둘일 것.
ⓒ 안긴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것.

실현 조건	예문
ⓐ, ⓑ	㉠
ⓐ, ⓒ	㉡
ⓑ, ⓒ	㉢

① ㉠: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② ㉠: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
③ ㉡: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④ ㉡: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
⑤ ㉢: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

이감 모의고사 3-1 이감ON 4차 언어와 매체 N제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보 기>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말한다. 가령 '닭이 모이를 먹다.'에서 '먹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런데 서술어는 문맥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 동일한 형태의 서술어여도 서로 다른 자릿수를 가질 수 있다.

① 농사철에는 손이 많이 간다.
   가족들과 동물원에 구경을 갔다.
② 그녀는 내 친구에게 종종 화를 냈다.
   그는 모든 신문에 회사 광고를 냈다.
③ 동전이 제자리에서 팽그르르 돌았다.
   저곳의 공장은 아직 잘 돌고 있었다.
④ 아이는 할아버지의 시선에 흠칫 놀랐다.
   그의 임기응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⑤ 작가는 자신의 인생관을 소설 속에 잘 나타냈다.
   증인은 끝내 법정에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37.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안은문장은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절을 지닌 문장이에요. 이때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절을 안긴절이라 하는데, 안긴절은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에 어떤 절이 안겨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이 가구는 값이 꽤 비싸다.
㉡ 아이가 소풍을 가자고 떼를 쓴다.
㉢ 그녀는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길 희망했다.
㉣ 친구는 한 시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 그는 나에게 몸이 괜찮아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학 생 : _____ [A] _____

①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고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어요.
②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고 ㉤에는 인용절이 안겨 있어요.
③ ㉡에는 관형사절이 안겨 있고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어요.
④ ㉡에는 인용절이 안겨 있고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어요.
⑤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고 ㉤에는 관형사절이 안겨 있어요.

37.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보기>의 조건이 실현된 예문을 만들어 보자.

<보 기>

ⓐ 현재 시제만 쓰일 것.
ⓑ 서술어의 자릿수가 둘일 것.
ⓒ 안긴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것.

실현 조건	예문
ⓐ, ⓑ	㉠
ⓐ, ⓒ	㉡
ⓑ, ⓒ	㉢

① ㉠: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② ㉠: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
③ ㉡: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④ ㉡: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
⑤ ㉢: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에서 시간은 두 범주로 나타난다. 하나는 문장의 사건이나 상황이 이루어진 시간인 사건시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이 발화되는 시간인 발화시이다.

문장의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후행할 경우 과거 시제가,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할 경우 현재 시제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선행할 경우 미래 시제가 사용된다. 이때 시제는 용언의 종결형에서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과거 시제는 '-었-/-았-'에 의해, 현재 시제는 동사의 경우 '-는-/-ㄴ-'에 의해,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실현된다. 미래 시제는 '-겠-'에 의해 주로 실현된다. 이처럼 발화시를 기준으로 시제를 나타내는 것을 절대 시제라고 한다.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보 기>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말한다. 가령 '나는 매일 차를 마셨다.'에서 '마시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런데 서술어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문맥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 동일한 형태의 서술어여도 서로 다른 자릿수를 가질 수 있다.

① 아이는 옷걸이에 새 옷을 걸었다. / 어머니는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다.
② 가을이 되면서 낙엽이 모두 졌다. / 아직 일이 남았는데 벌써 해가 졌다.
③ 자동차 뒷바퀴가 진구렁에 빠졌다. / 그 말을 들으니 다리에 기운이 빠졌다.
④ 동생은 운동장을 다섯 바퀴 돌았다. / 시간이 지나니 온몸에 약 기운이 돌았다.
⑤ 우리는 밤새 오늘 제출할 보고서를 만들었다. / 그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었다.

37.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보기>의 조건이 실현된 예문을 만들어 보자.

<보 기>

ⓐ 현재 시제만 쓰일 것.
ⓑ 서술이의 자릿수가 둘일 것.
ⓒ 안긴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것.

실현 조건	예문
ⓐ, ⓑ	㉠
ⓐ, ⓒ	㉡
ⓑ, ⓒ	㉢

① ㉠: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② ㉠: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
③ ㉡: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④ ㉡: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
⑤ ㉢: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뱀은 다리가 없고 혀는 아주 길다.
ⓑ 정말 잘 구워진 빵을 선물로 받았다.
ⓒ 아버지는 내가 나갔음을 알고 계셨다.
ⓓ 아이들이 가을 소풍 가자고 떼를 쓴다.
ⓔ 지금은 들판 건너의 마을에 가기에 이르다.

① ⓐ의 '아주 길다'는 형용사구에 해당하고, '다리가 없고'는 서술절에 해당한다.
② ⓑ의 '정말 잘'은 부사구에 해당하고, '정말 잘 구워진'은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③ ⓒ의 '알고 계셨다'는 동사구에 해당하고, '내가 나갔음'은 명사절에 해당한다.
④ ⓓ의 '가을 소풍'은 명사구에 해당하고, '가을 소풍 가자'는 인용절에 해당한다.
⑤ ⓔ의 '들판 건너의'는 관형사구에 해당하고, '들판 건너의 마을에 가기에'는 부사절에 해당한다.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은문장은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절을 지닌 문장이다. 이때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사절은 전성 어미 '-(으)ㅁ'이나 '-기'가 붙어 만들어지며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역할을 한다. 관형사절은 '-(으)ㄴ', '-는', '-(으)ㄹ', '-던' 등의 전성 어미가 붙어, 부사절은 부사형 전성 어미나 접사 '-이' 등이 붙어 만들어지며, 문장 내에서 부속 성분의 기능을 한다. 인용절은 '고', '라고' 등의 조사가 붙어 만들어지며,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따온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서술절은 안은문장의 주어에 대하여 서술어로 기능한다.

아래는 위의 자료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이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

ⓐ ㉮와 ㉰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와 달리 ㉯에는 부사어로 기능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의 안긴문장 개수는 ㉰의 안긴문장 개수보다 더 많다.
ⓓ ㉯와 달리 ㉮에는 전성 어미가 결합하여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와 달리 ㉯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언어와 매체 : 언어 — 문항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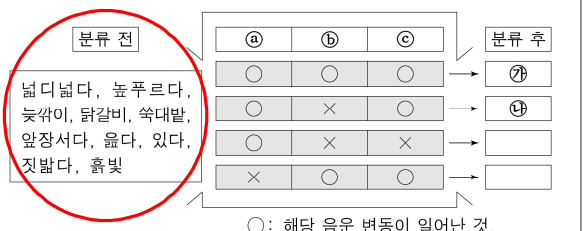
• 단어의 발음에 적용된 음운 변동을 파악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룸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 <보기>의 ㉮, ㉯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음운의 변동 가운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를 학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운 변동의 적용 유무를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그럼, 표준 발음을 고려해서 다음 단어들을 분류해 보죠.



○: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
×: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

	㉮	㉯
①	짓밟다	늦깎이
②	넓디넓다	있다
③	읊다	높푸르다
④	흙빛	쑥대밭
⑤	닭갈비	앞장서다

이감 모의고사 3-4 이감ON 2차 언어와 매체 N제

38.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음절의 종성 자리에서는 교체나 탈락 등의 음운 변동이 일어납니다. 음절의 종성이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되기도 하며,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하기도 하지요. 또한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음절의 종성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해 탐구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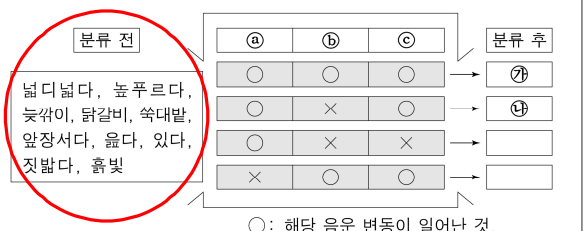
[자료]
값있다[가빋따] 겉허울[거터울] 극한값[그칸깝]
밟히다[발키다] 붉은엿[불근녇] 흙화덕[흐콰덕]

학 생: (㉠)에서는 교체와 탈락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을 음절의 종성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에서는 탈락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을, (㉢)에서는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을 음절의 종성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과/와 (㉢)에서는 모두 음절의 종성이 다음 음절의 초성과 결합하는 축약 현상도 확인할 수 있어요.

38. <보기>의 ㉮, ㉯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음운의 변동 가운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를 학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운 변동의 적용 유무를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그럼, 표준 발음을 고려해서 다음 단어들을 분류해 보죠.



	㉮	㉯
①	짓밟다	늦깎이
②	넓디넓다	있다
③	읊다	높푸르다
④	흙빛	쑥대밭
⑤	닭갈비	앞장서다

38.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음운 변동은 교체, 첨가, 축약, 탈락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한 단어에서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값[온깝]'에서는 총 세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중 교체가 두 번 일어났지요. 그럼 다음 단어들 중에서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난 단어들을 있는 대로 찾아봅시다.

근육염[그눙념], 넓적이[넙쩌기], 부엌문[부엉문], 습학하다[스파가다], 흙넣기[흥너기]

학 생: ㉮ 이/가 이에 해당하겠군요.

① 근육염, 넓적이, 흙넣기
② 부엌문, 습학하다, 흙넣기
③ 근육염, 부엌문
④ 넓적이, 흙넣기
⑤ 부엌문, 습학하다

37. <보기>의 ㉠~㉢을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음절의 종성 자리에서는 ㉠파열음의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되기도 하며, ㉡마찰음이나 파찰음이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되기도 한다.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하기도 한다.

① '꺾는[껑는]'에서는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② '벚꽃[벋꼳]'에서는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③ '닳지[달치]'에서는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④ '끝없다[끄덥따]'에서는 ㉠,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났다.
⑤ '짓밟는[진빰는]'에서는 ㉡,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났다.

언어와 매체 : 언어 — 문항 유사

• 대화에서 사용된 지시 표현에 대해 파악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룸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39.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희철, 민수, 기영이 ○○ 서점 근처에서 만난 상황)

희철 : 얘들아, 잘 지냈어? 3일 만에 보니 반갑다.

민수 : 동해안으로 체험 학습 다녀왔다며? ㉠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발표 준비하자. 기영인 어떻게 생각해?

기영 : ㉡ 네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정수도 부를까?

희철 : 그러자. ㉢ 저기 저 ○○ 서점에서 오전 10시에 만나서 다 같이 도서관으로 가자. ㉣ 정수한테 전할 때 서점 위치 링크도 보내 줘. 전에도 헤맸잖아.

민수 : 이제 아냐. ㉤ 어제 나랑 저기서 만났는데 잘 ㉥ 왔어.

희철 : 그렇구나. 어제 잘 ㉦ 왔었구나.

민수 : 아, 기영아! ㉧ 우리는 회의 가야 돼. ㉨ 네가 ㉩ 우리 셋을 대표해서 정수에게 연락을 좀 해 줘.

① ㉠은 ㉤과 달리 발화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인지가 정해진다.
② ㉢은 ㉡과 달리 지시 표현이 이전 발화를 직접 가리킨다.
③ ㉣은 ㉨과 달리 담화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④ ㉥은 ㉦과 달리 화자가 있던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⑤ ㉧은 ㉩과 달리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감 모의고사 2-1 언어와 매체 N제

39.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시 표현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지시 표현에는 ㉠ 발화 현장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와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그 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하늘 : 다정아, 저 파란 간판 빵집 보여? ㉠ 저기 식빵이 그렇게 맛있대. 같이 가 보자.

다정 : 좋아. 나도 ㉡ 그거 먹어 보고 싶었어. 근데 동생을 데리고 가도 괜찮아? 동생이 혼자 있어서.

하늘 : 당연하지. 그럼 ㉢ 우리 ㉣ 이렇게 하자. 내가 먼저 가서 빵을 주문해 놓을 테니 너는 동생을 데리고 와.

다정 : 그래, ㉤ 우리 음료는 ㉥ 거기 가서 따로 주문할게. 심심하면 가서 ㉦ 이 책을 읽고 있어. 어제 빌렸는데 재밌더라.

하늘 : 고마워. 좀 이따 보자.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직시'는 어떤 언어 표현의 의미가 발화 장면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나', '이곳', '지금'과 같은 지시어들은 문맥이나 상황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료〕

㉠ 나날이 라면만 먹고 살 수는 없다.
㉡ 저기가 경치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 30분 뒤에 학교 앞 공원에서 만나자.
㉣ 그는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
㉤ 어제가 고모부 생신이었는데 오늘에야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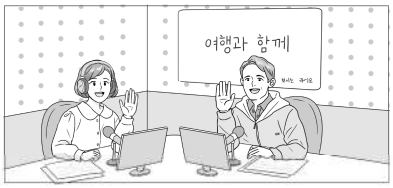
언어와 매체 : 매체-언어 통합 — 지문 및 문항 유사

- 라디오 매체를 지문으로 다루고 그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음
- 매체 수용자들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음
- 슬라이드의 생산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음
- 높임 표현에 대해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음(언어)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40~43] (가)는 보이는 라디오의 본방송이고, (나)는 이 방송을 들은 학생의 메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매주 수요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과 함께'를 시작합니다. 앱이나 문자로 언제든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는 실시간 댓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여행가 안○○ 님을 모셨습니다.

여행가: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진행자: ⓓ 실시간 댓글로 6789 님께서 스탬프 여행의 주의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여행가: ⓔ 네, 앞에서 말씀드린 완주 인증은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합니다. 처음엔 스탬프로 완주 인증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바뀐 거죠. 하지만 스탬프를 찍기 원하는 여행자들이 많아 여전히 스탬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등대나 기쁨항 등대처럼 등대 주변에 스탬프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므로 지난주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② 본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한다.
③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방송에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선택하여 조절한다.
④ 청각적 정보만 접할 수 있는 수용자가 있으므로 방송 중에 제공한 시각적 정보를 음성 언어로 풀어서 설명한다.
⑤ 수용자들이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시간 댓글과 문자를 바탕으로 이어질 정보를 조정한다.

이감 모의고사 2-1 / 3-2 / 3-4 이감ON 2차 언어와 매체 N제

[40~42] (가)는 라디오 방송의 일부이고, (나)는 블로그 게시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는 ㉠ 제철 음식을 소개하는 '건강 밥상' 시간이죠? 오늘은 식품영양학자 △△△ 님과 함께합니다. 79.9 MHz에 주파수를 고정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7990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 님, 오늘 소개할 음식은 무엇인가요?

△△△: 인터넷 청취자 게시판을 보니 나른한 요즘 활력을 찾게 할 제철 음식을 찾으셔서, 두릅을 소개하려 합니다.

진행자: 지금이 두릅 철이군요. 두릅을 먹으면 어떤 점이 좋죠?

△△△: 두릅은 각종 비타민 함량이 높아 활력을 찾게 합니다.

진행자: 두릅에 비타민이 많군요. ㉡ 그런데 두릅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 있습니다. 두릅의 줄기에는 약한 독성이 있는데요, ㉢ 끓는 물에 데치면 사라지니 꼭 데쳐 드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아, 지금 청취자로부터 "저는 두릅을 데쳐 초장과 함께 먹기만 했는데, 색다른 두릅 요리법은 없을까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네요.

△△△: 두릅석을 추천해 드릴게요. 꼬치에 소고기와 데친 두릅을 꽂아 부쳐 내는,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음식이죠.

진행자: 말씀을 들으니 입에 침이 고이는군요. 두릅적의 자세한 조리법은 청취자 게시판에 올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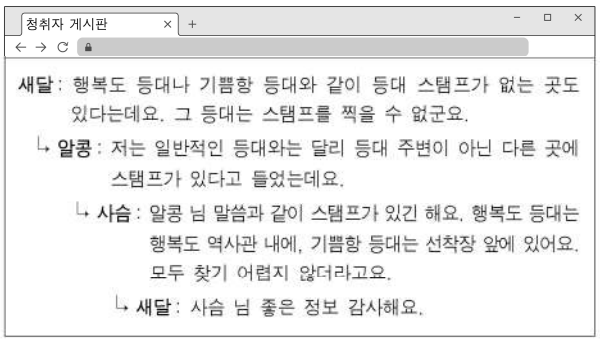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나)는 수용자에게 약속된 정보를 정해진 시각에 전달하고 있다.
② (가)와 달리 (나)는 수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와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③ (가)와 달리 (나)는 전파를 활용하여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수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 (나)와 달리 (가)는 수용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해당 매체에서 같은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와 달리 (가)는 정보들을 주제별로 분류한 뒤 제공하여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쉽도록 돕고 있다.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므로 지난주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② 본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한다.
③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방송에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선택하여 조절한다.
④ 청각적 정보만 접할 수 있는 수용자가 있으므로 방송 중에 제공한 시각적 정보를 음성 언어로 풀어서 설명한다.
⑤ 수용자들이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시간 댓글과 문자를 바탕으로 이어질 정보를 조정한다.

41. 다음은 (가)가 끝난 후의 청취자 게시판이다. 참여자들의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의 잘못된 이해가 '알콩'과 '사슴'의 댓글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
② 방송 내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새달'과 '알콩'의 공통된 생각에 '사슴'이 동조하고 있다.
③ 방송을 듣고 '새달'이 느낀 감정을 '알콩' 및 '사슴'과 공유하여 정서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방송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새달'과 '알콩'의 서로 다른 생각이 '사슴'에 의해 절충되고 있다.
⑤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과 '알콩'의 긍정적 감정이 '사슴'의 댓글로 인해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44. 위 방송에 반영된 기획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가 음성으로만 전달되니, 방송 출연자의 표정과 몸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음성 언어로 설명해야겠군.
② 청취자의 이탈을 막으려면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하니, 새로운 방송 주제를 언급하며 방송을 마무리해야겠군.
③ 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사람은 지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니, 앞선 내용을 요약 제시하며 방송을 재개해야겠군.
④ 라디오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매체로도 활용되니, 제품 광고를 방송의 중간중간에 반복적으로 삽입해야겠군.
⑤ 정해진 방송 시간을 준수해야 하니, 일부 청취자의 의견만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것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해야겠군.

43. (가), (나)에 드러나 있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는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이미 제시된 정보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정보 생산자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일방향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정보 생산자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용자와 직접 면 대 면으로 만나고 있다.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정보 생산자가 문자 언어와 영상을 결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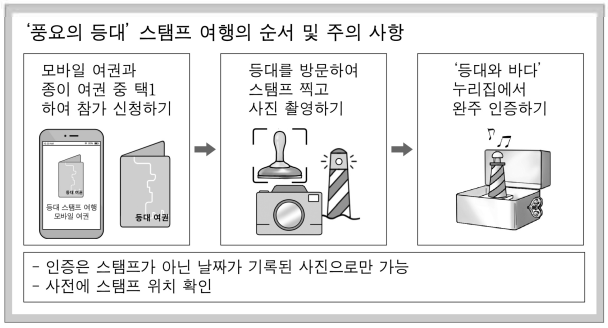
45. <보기>를 참고하여 위 방송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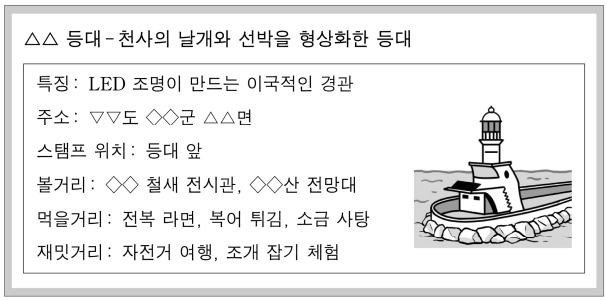
<보 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수용자는 방송과 결합된 채팅을 통해 생산자 및 다른 수용자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때 수용자는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의 반응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여 생산자가 방송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수용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지 말아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함부로 유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녹차'는 '날개'가 제시한 내용이 잘못된 이유를 언급함으로써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⑤ '꿀벌'은 비언어적 표현이 담긴 이모티콘을 사용함으로써 진행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긍정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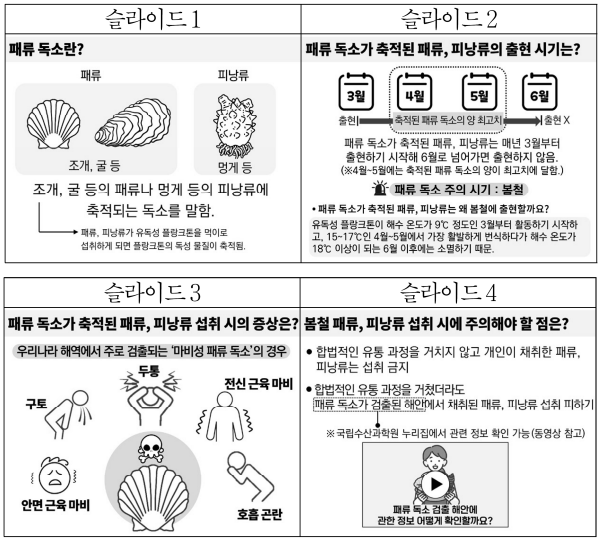
42.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발표 자료이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기로 한 ㉠은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을 모아 하나의 슬라이드로 구성하자.
② 여행의 순서를 나타내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 순서를 구분하고 차례가 드러나게 화살표를 사용하자.
③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소개한 여행의 순서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그림 자료로 보여 주자.
④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언급한 먹을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자.
⑤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기로 한 ㉡은 여행가의 말을 가져와 슬라이드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달자.

(나)



45. (가)를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이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패류 독소의 개념을 문사 언어로 정리하여 첫 번째 슬라이드에 담아 주어야지.
② 정보가 보강되도록 (가)에서 제시한 봄철에 패류 독소 중독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패류 독소가 축적된 패류, 피낭류가 봄철에 출현하는 이유도 조사하여 추가해야지.
③ 정보가 복합 양식적으로 표현되도록 (가)에서 제시한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구로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동영상도 삽입해야지.
④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가)에서 제시한 패류 독소가 축적된 패류, 피낭류의 출현 시기에 관한 내용을 이미지와 화살표를 결합하여 표현하고 이를 설명하는 글을 덧붙여야지.
⑤ 정보가 구분되어 파악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마비성 패류 독소 섭취 시 유발되는 각각의 증상들과 관련된 그림 기호를 사용해 나타내고 중증의 경우 별도의 기호로 표시해야지.

43. ⓐ~ⓔ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하여, 방송을 듣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② ⓑ: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여행가를 높이고 있다.
③ ⓒ: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여권 선택의 주체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④ ⓓ: '있으시다'를 사용하여, 궁금증이 있는 주체인 '6789 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⑤ ⓔ: '말씀'을 사용하여, 화자인 여행가의 말을 높이고 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학습 활동>

높임 표현은 겹문장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다음 조건에 맞는 겹문장을 만들어 보자.

[조건]

- 어말 어미를 통한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할 것.
- 안긴문장에 객체 높임 표현이 나타나며, 그 대상이 안은문장의 주어가 될 것.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의 대상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② ㉡: 하십시오체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다.
③ ㉢: 접속 부사 '하지만'을 활용하여 앞 문장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 연결 어미 '-면'을 활용하여 앞 절의 내용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⑤ ㉤: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뉴스에서 언급된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체를 나타내고 있다.

44.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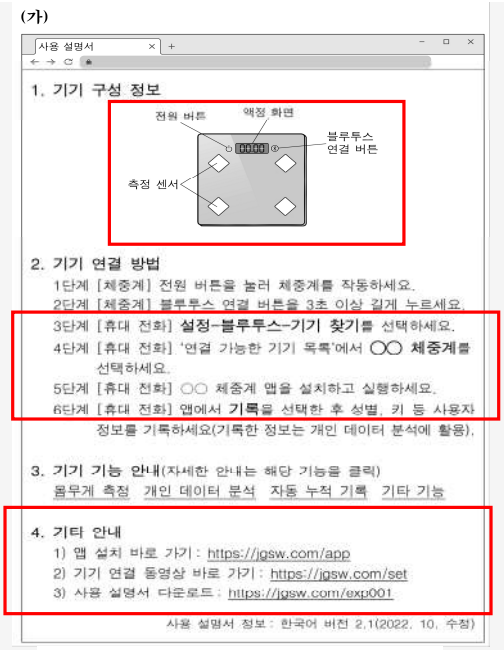
① ㉠: 높임 표현인 '모시다'를 활용하여 시청자를 높이 대우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② ㉡: 연결 어미 '-도록'을 사용하여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목적에 해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 대명사 '이'를 활용하여 이미 언급된 대상을 대신 가리켜 발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④ ㉣: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진행자가 자신의 발화를 완곡한 태도로 전달하고 있다.
⑤ ㉤: 나열의 방식을 사용하여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부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와 매체 : 매체 — 지문 및 문항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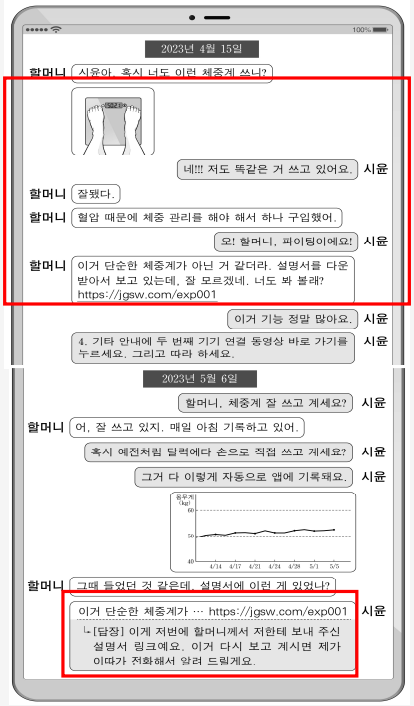
• 전자 문서와 유사한 인터넷 카페 게시 글을 다루고 그 표현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음
• 메신저를 지문으로 다루고 그 활용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음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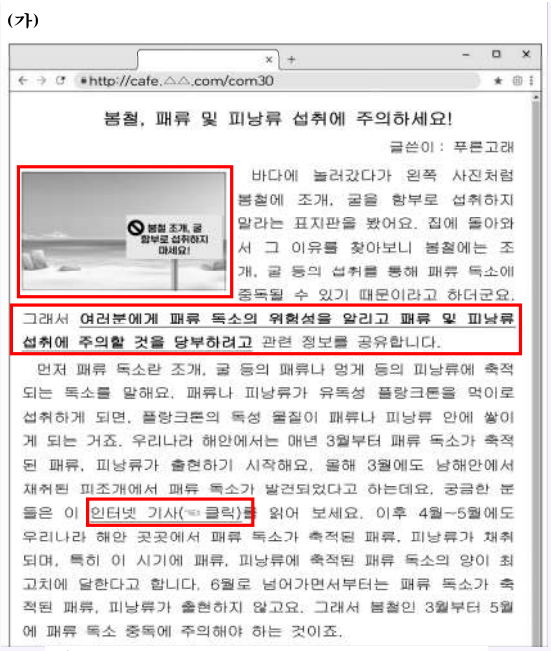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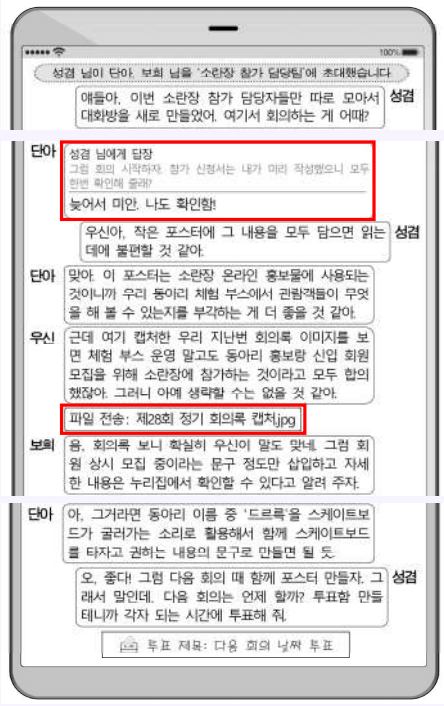


이감 모의고사 3-1 / 3-2

(가)



(나)



44. (가)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기 구성 정보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했다.
② 기기를 휴대 전화와 연결하는 방법을 조작 순서에 맞추어 안내했다.
③ 기기 연결 방법에서 앱에 기록할 정보는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표시했다.
④ 기기 기능 안내에서는 안내받을 수 있는 기능의 항목을 나열하여 배치했다.
⑤ 사용 설명서의 버전 정보를 수정 시점과 함께 제공했다.

44.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패류 독소와 관련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소제목을 사용하여 부각했다.
② 패류 독소로 인한 중독의 위험성을 제목에서 제시해 수용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③ 패류 독소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목적을 글자의 굵기를 달리하고 밑줄을 그어 강조했다.
④ 패류 독소가 축적되는 해산물의 종류를 소개한 블로그 게시물을 하이퍼링크를 통해 안내했다.
⑤ 패류, 피낭류가 먹이로 섭취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의 모습을 사진 자료로 제시해 관련 정보를 보충했다.

45.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내용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선별하여 유통할 수 있군.
② (나)의 사용자들이 서로 교환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의 수정 과정을 점검할 수 있군.
③ (가)는 (나)와 달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여 요청할 수 있군.
④ (나)는 (가)와 달리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외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군.
⑤ (가)와 (나)는 모두 정보를 교류한 이력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불러와 상대방에게 이전 내용을 환기할 수 있군.

42. (나)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성겸'은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투표 기능을 활용하였다.
② '우신'은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대화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를 공유하였다.
③ '단아'는 특정 발언에 직접 대답을 달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성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④ '성겸'은 지난 회의의 내용을 상기하기 위해 회의 중에 참고할 수 있는 파일을 전송하였다.
⑤ '보희'는 회의 참여자들이 동일한 장소에 모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대화 공간을 생성하였다.



이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길 3 (양재디에스타워) 3층
T 02-567-9507 F 02-567-9509 www.yigam.co.kr